

SBI Story

[SBI저축은행 본사 이전]

SBI ISSUE

['SBI희망이끄미' 멘토·멘티]

Healing Time

[6명의 스파이더맨, 짜릿한 스포츠 클라이밍에 도전하다!]

달콤한 나의 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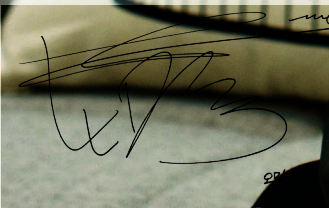
['김남열 부장' 가족의 짜주출판단지 나들이]

Bravo! My Life

[SBI저축은행 광고모델 '배우 오민석']



<SBI 저축은행 워킹 독자 여러분 사랑해요!>
배우 오민석



2015 SPRING
vol. [5]

B E Y O N D S A V I N G S

B A N K

따뜻한 봄,
〈희망〉에서 만난 사람들이 남긴

말말말



SBI저축은행 대표이사 김종욱

“SBI저축은행은 이제 ‘저축은행을 뛰어넘는 고객서비스(Beyond Savings Bank)’를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해 나갈 것입니다. 저축은행의 수준을 뛰어넘어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업의 한계를 뛰어넘는 고객서비스는 무엇인지에 더욱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배우 오민석

“흔들릴 때마다 주변에서 저를 향해 보내준 신뢰가 다시 마음을 붙잡게 한 원동력이 된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소속사 대표님은 아무도 저를 모를 때 찾아와 “잘 될 것이다”라며 같이 일해 보자고 손 내밀어 주셨거든요. 그러한 믿음과 확신 덕분에 더 열심히 했어요.”



소호영업부 박병은 대리

“새 보금자리가 가져다 준 가장 큰 변화. 바로 생기 넘치는 사무실 분위기가 형성되었다고 할까요? 그동안에는 부서가 다르면 이름까지는 미처 알지 못했는데, 이렇게 한 공간에서 함께하며 마주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름도 얼굴도 익혀가는 것 같아요. 같은 회사 직원이라는 유대감도 형성되고요.”



여신영업2부 최중순 부장

“기존 ‘저축은행’의 고정관념을 탈피하며 새롭게 도약하는 SBI저축은행을 보며, 또 한 번 도전을 시작하려는 저와도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SBI인이 되고자 도전하였고, 이 시도가 무의미하지 않게 열심히 정진하고 있습니다.”



IBI부 황도선 차장

“회사를 이동한다는 것은 사회생활에서 또 다른 전기를 맞이하는 일이지요. SBI저축은행에서의 생활은 고객의 금융 플랜을 설계해드릴 뿐만 아니라 제 인생 또한 재설계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홍보부

“알차고 참신한 웹진은 홍보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SBI저축은행 전 직원의 이야기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완성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망설이지 말고 다양한 콘텐츠 및 이벤트에 적극 참여해주세요.”



지점관리부

“지점 직원에 관한 건의 및 불편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더 나은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여 더 발전된 환경과 최적의 고객서비스를 선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포지점 서정민 과장

“뒤편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클라이밍과 회사생활이 무척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회가 된다면 암벽등반을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CSS부 김남열 부장

“저희 시대 아버지들은 대개 무뎠고 권위적이셨잖아요. 저는 아이들과 편하게 얘기하고 소통할 수 있는 아빠가 되고 싶어요.”

“완생이 되는 그 날까지 모두 파이팅 하십시오.”

SBI저축은행 광고 모델로 활동 중인 배우 오민석. 그의 호감 가는 외모와 드라마 〈미생〉에서 보여준 존재감 있는 이미지는 SBI저축은행에 신뢰감을 형성하며 젊은 느낌을 전하고 있습니다. 2015년 봄, SBI저축은행은 새로운 모델이 된 오민석과 함께 더 큰 걸음을 내디디려 합니다. 묵묵히, 그러나 쉬지 않고 목표를 현실로 일궈나가겠습니다. 그 걸음에 함께 동참해 주세요.

SBI저축은행 웹진형 사보 “희망” • 발행일 : 2015년 4월 1일 • 발행인 : 김종욱 • 발행처 : SBI저축은행 홍보부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센터원빌딩 동관 9층 • 담당 : SBI저축은행 홍보부 김원준(02-3416-6235)
 • 기획 및 디자인 : 디자인정글㈜



Theme Talk [‘진짜 세상’을 바꾼 ‘가상의 세계’, SNS] • 04

진화하는 SBI

CEO'S Letter • 08

SBI Story [SBI저축은행 본사 이전] • 10

SBI Talk Talk [소호영업부 ‘박병은 대리’가 전하는 즐거운 변화] • 14

SBI 희망 NEWS [분기별 SBI 뉴스 모음] • 16

SBI ISSUE [‘SBI희망이끄미’ 멘토·멘티] • 20

소통하는 SBI

새 얼굴을 소개합니다 [SBI저축은행의 가족이 된 새 얼굴을 소개합니다] • 24

나는 SBI이다 [너의 셀피를 보여줘!] • 28

환상의 파트너 [지점관리부 & 홍보부] • 30

Healing Time [6명의 스파이더맨, 짜릿한 스포츠 클라이밍에 도전하다!] • 34

달콤한 나의 가족 [‘김남열 부장’ 가족의 파주출판단지 나들이] • 38

SBI Hot Place [SBI인 추천 맛집·멋집 ‘성북동’ 편] • 42

직장생활 솔루션 [특명! 관계의 정글에서 살아남기] • 44

함께하는 SBI

Bravo! My Life [SBI저축은행 광고모델 ‘배우 오민석’] • 48

금융가이드 [두 자녀를 둔 30~40대 부부의 재테크] • 52

Culture Blog [싱그러운 봄기운과 함께 도심 속에서 즐기는 캠핑의 낭만] •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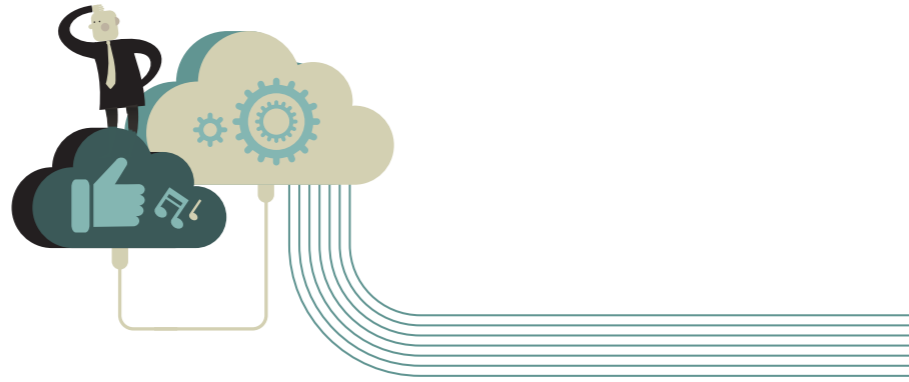
고객으로부터 온 편지 • 56

행복 릴레이 • 58

Break Time • 59

THEME TALK

‘진짜 세상’을 바꾼 ‘가상의 세계’, SNS



이번 호 <희망>의 테마는 ‘바꾸다’입니다. 세상을 바꾼 위대한 아이디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단연 인터넷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발달을 꼽을 수 있습니다. ‘진짜 세상’을 바꾼 ‘가상의 세계’ 이야기, 한 번 들어보시겠어요?

훗날 ‘아랍의 봄’으로 불린 2010년 12월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일어난 일련의 반정부 시위들은 아랍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든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알제리, 바레인, 이집트, 이란, 요르단, 리비아, 모로코, 튀니지, 예멘 등지에서 모두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고 이라크와 쿠웨이트, 심지어는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에서도 작은 규모의 반정부 시위가 발생했다.

‘아랍의 봄’이 매우 특별한 사건으로 기억되는 이유는 페이스북과 트위터 같은 소셜 미디어, 바로 SNS 때문이다. 방송과 신문 등 기존 미디어가 철저히 통제된 상황에서 전 세계 사람들은 SNS를 통해 거의 실시간으로 현장 상황을 전해들을 수 있었다. 현지 지도부도 SNS를 통해 조직을 운영하고 시위대에게 메시지를 전했다. 트위터에 올라간 메시지는 순식간에 수백, 수천만의 성난 지지자들을 통해 리트윗되며 아랍 정부와 그들에게 동조하는 서방 국가의 수뇌부를 압박했고, 그 결과 튀니지와 이집트는 정권 교체를 이뤄냈다.

단순히 하버드 학생들만을 위한 인맥 교류 사이트가 될 뻔한 아이디어가 어떻게 기업가치 58조 원짜리 사업으로 발전했는가는 영화 ‘소셜 네트워크(The Social Network, 2010)’에서 자세히 묘사됐다. 전 세계 최연소 억만장자라는 수식어가 붙은 페이스북의 창시자 마크 주커버그는 대부분의 경우에 자신과 동료들이 한 일이라곤 열심히, 정말 열심히 코딩을 한 것뿐이라고 말한다(영화에서도 그런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주인공인 마크가 끊임없이 코딩을 하고 있다).



‘인맥 교류 서비스’에서 ‘세상을 바꾸는 강력한 도구’가 된 SNS는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빅데이터다. 그 어떤 조사도구보다 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성별, 연령별, 인종별, 직업별로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할 수 있다. 그 결정적인 사례가 미국 대선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08년과 2012년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을 페이스북과 트위터에서 찾는 사람들이 많다(그보다는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 활용의 정식으로 풀이하는 게 정확하다). 선거 자금 모금, 유권자 분석, 공략 대상 선정, 선거운동 방법 선정, TV 광고의 목표 설정, 선거 시뮬레이션 수행 및



제안, 온라인 대응 등을 온라인, 특히 SNS로 모은 데이터를 분석해 아주 정교하고 정확하게 실행했다.

먼 나라의 예를 들 것도 없다. 페이스북은 한국 내 마케팅을 진행함에 있어 선택 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 된 지 오래다.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가 2,500만 명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페이스북은 하나의 권력이 됐다. 국내 페이스북 접속자 트래픽 중 70%가 모바일에서 나온다. 그중 30~40대 남녀가 차지하는 비율은 압도적이다. 즉, 기업 입장에서 30~40대에게 무언가를 알리거나 팔기 위해서는 페이스북에 페이지를 개설하는 작업은 네이버에 블로그를 개설하는 것만큼 중요해졌다는 뜻이다.

한국 내 영향력만 놓고 본다면 카카오톡과 연동된 카카오톡스토리가 더 중요할 수도 있

다. 하지만 각 아이템마다 사람들이 선호하는 채널은 확연히 차이가 난다. 마치 편의점과 슈퍼마켓, 대형마트에 사람들이 가는 이유가 다르듯이 카카오톡스토리와 페이스북에서 전달하는 메시지는 그 내용이 같더라도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방식과 뉘앙스가 전혀 달라진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페이스북이 성공한 요인은 개방성이다. 검색만 하면 열린 페이지와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 무한대로 접속할 수 있다. 물론 개방의 정도는 개설한 쪽에서 설정할 수 있지만, 오직 아는 사람들과만 소통하려고 페이스북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 다시 그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으로 뻗어나가는 다양성과 재미로 인해서 조금만 인기있는 페이지는 순식간에 수백, 수천 명의 ‘좋아요’를 획득하고 돈 한 푼 들이지 않았음에도(물론 인건비는 들겠지만) 엄청난 화제가 된다. 신문, 방송을 이용한다면 수천에서 수억이 들어야 할 캠페인일 수 있는데도 말이다.

다양한 이름과 사례들이 있지만, SNS는 온라인의 성공 공식을 그대로 증명하는 예일 뿐이다. 애플이 앱스토어를 개방하고 아이튠즈의 음원 수익을 정당하게(당시 기준으로) 나누기 시작하자 순식간에 생태계가 형성되고 스마트폰과 태블릿 업계의 기준이 되었듯, 페이스북이 누구든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모두에게 노출될 수 있도록 개방하자 온라인에 접속 가능하다면 누구나(지구인은 물론 외계인까지!) 이 매력적인 광장으로 몰려들게 된 것이다.



진화하는 SBI **희망**

CEO'S Letter

SBI Story [SBI저축은행 본사 이전]

SBI Talk Talk [소호영업부 '박병은 대리'가 전하는 즐거운 변화]

SBI 희망 NEWS [분기별 SBI 뉴스 모음]

SBI ISSUE ['SBI희망이끄미' 멘토·멘티]

저축은행을 뛰어넘는 고객서비스

BEYOND SAVINGS BANK

친애하는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따스한 봄볕이 세상을 감싸 안는 4월이 되었습니다.

겨우내 움츠려 있던 만물이 소생하고 기분 좋은 기지개를 펴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봄이 '계절의 여왕'이라는 말을 더욱 실감하게 됩니다.

저희 SBI저축은행 임직원들은 최근까지 계절의 변화도 잊은 채 경영 정상화와 법인 통합 작업에 역량을 다해 왔습니다. 더욱이 지난 3월에는 강남 테헤란로에 위치해 있던 본사를 '금융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을지로로 이전하여 고객분들께 저축은행을 뛰어넘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완벽한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지난 2014년은 저축은행 업계 전체가 경영 정상화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한 한 해였습니다. 2009년 하반기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2,000억 원에 가까운 분기 흑자를 시현하는 등 업계 스스로가 성공적인 모습으로 환골탈태(換骨奪胎)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SBI저축은행은 자산 1위, 대출 1위 등 업계 선두주자로서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저축은행 본연의 자세로 개인대출은 물론 중견·중소 기업금융의 틈새시장을 발굴하여 우량 중소기업 대출의 새로운 강자로 올라섰으며, 중저금리 신용대출, 사업자대출, 주택담보대출 등의 각 부문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자동차대출인 오토론과 업계 최초의 온라인 주택담보대출 서비스를 출시하는 등 소비자금융시장에서의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지난 연말 2/4분기에는 4년 만에 분기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앞으로도 확고한 건전성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수익성을 확보하고, 이를 고객 여러분과 사회에 되돌려 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고객 여러분!

SBI저축은행은 이제 '저축은행을 뛰어넘는 고객서비스(Beyond Savings Bank)'를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해 나갈 것입니다. 저축은행의 수준을 뛰어넘어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업의 한계를 뛰어넘는 고객서비스는 무엇인지에 더욱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뢰받는 은행, 고객을 주인으로 섬기는 은행으로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SBI저축은행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015년 봄, SBI저축은행 대표이사 김종욱

CEO'S
LETTER
對 客
메 시 지

CEO'S
LETTER
對 職 員
메 시 지



저축은행의 한계를 넘어서

BEYOND SAVINGS BANK

자랑스러운 SBI저축은행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지난 1년 반 동안 '확고한 성장 기반 구축'이라는 목표 아래 쉽 없이 달려왔습니다. 최근에는 법인 통합에 이어 '금융의 메카'인 을지로로 본사 이전을 무사히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저축은행 업계 1위에 걸맞은 명실상부한 우량 금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영업과 조직 등 모든 면에서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 내는 일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에게 '쉽표'는 사치에 불과합니다. 그동안 달려왔던 것 이상으로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매진해야만 합니다.

우리 저축은행 업계의 경영환경은 최근 사상 최저 수준의 기준금리 인하와 경기 침체, 금융업 전반에 걸친 예대마진율 하락, 대출이자율 인하 압박 등 극도의 불확실성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난 2/4분기에 4년여 만에 분기 흑자를 달성하는 등 긍정적인 성과를 시현했습니다. 이러한 기세를 몰아, 오는 6월 말 기준 연간 흑자 전환을 반드시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를 통해 우량자산을 확보하고 오토론 등의 신상품에서도 성과를 거두어야만 합니다.

임직원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목표의 실현을 위해 무작정 앞만 보고 달려가서는 안 됩니다. 급할수록 단계를 거르지 말고 정도를 지켜야 합니다. 금융인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윤리의식입니다. 실제로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눈앞의 상황에 밀려 잘못된 판단으로 일을 그르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사회와 회사가 엄격한 잣대를 기준으로 요구하기 전에 개개인이 먼저 자신에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더욱이 SBI인이라면 올바른 길을 가야만 합니다. '올바른 길'이란 회사가 가고자 하는 경영방침과 목표를 올바르게 인식하여 본인의 역할에 맞는 책임을 스스로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SBI그룹의 경영이념 중의 최우선 덕목 역시 '윤리적 가치관'입니다. 윤리적 가치관은 '올바른 길'을 가는 데 있어 가치판단의 근간이 되어야 하며, 역할과 책임을 다함에 있어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Beyond Savings Bank!

우리 모두가 낡은 사고와 관습을 과감히 버리고 환골탈태(換骨奪胎) 하는 마음이 짐으로 목표를 향해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봄, SBI저축은행 대표이사 김종욱



Beyond Savings Bank



▲ 고객접견실 _ Information Desk(9F)

센터원 동관 9층에 위치한 방문객 접견 공간. 방문객에게 쾌적한 첫인상을 줄 수 있도록 깔끔한 인테리어에 집중했다.

SBI저축은행 본사 이전

SBI저축은행이 대한민국 '금융의 메카'인 을지로로 본사를 이전했다.
과연 새로운 일터는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 지금 바로 살펴보자.

고객접견실 내부(9F) ▼

아이보리와 브라운 계열의 따뜻한 느낌의 컬러를 활용한 고객접견실 내부.
고객과의 편안한 미팅 및 회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구성했다.





▲ MEETING Room_01(9F)

중회의실에는 SBI인들의 전문적인 프레젠테이션을 돕기 위해 최신 빔프로젝트 시설을 구비했다.

▼ 사무공간(9F~11F)

9~11층에 위치한 직원 사무공간은 쾌적한 업무환경을 갖췄다. 밝은 분위기를 연출하는 자연 채광과 탁 트인 개방형 구조가 동료 간, 부서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 비서실(9F)

▼ 원더룸(9F)



▲ 접견실(9F)

▼ 대표이사실(9F)



▼ 교육장(11F)



업무환경도 업그레이드! 내 일상도 업그레이드! 소호영업부 '박병은 대리'가 전하는 즐거운 변화

지난 3월 9일, SBI저축은행 본사가 강남을 벗어나 을지로 센터빌딩에 새로운 보금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사우들이 오가는 길도, 업무환경에도 크고 작은 변화가 생겼는데요. 소호영업부에서 신규 아파트 담보대출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병은 대리의 하루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08:30 _ 을지로입구역

“오늘 하루도 파이팅!”

월요일 아침임에도, 이토록 제 발걸음이 가벼운 이유! 바로 새로운 보금자리에 대한 기대와 설렘 때문이랍니다. 북적대는 삼성동과 이별하고, 을지로에서 내로라하는 센터빌 건물로 출근하게 되었으니 SBI인으로서 자부심이 마구 샘솟더라고요. 근처에서 일하고 있는 다른 회사 친구들로부터도 부러움을 듬뿍 사고 말이지요.

의정부에 살고 있는 저는, 대학 시절 자주 애용했던 1호선을 타고 시청역까지 와서, 2호선으로 갈아탑니다. 삼성동보다는 수하동이 가까워서 출근시간은 20분 정도 단축되었어요. 아침에 20분 차이란 어마어마한 거 아니죠?^^ 출근길 역마다 나름의 추억(친구들과 늘 소란스레 떠들며 서 있었던 학교 앞 지하철역 플랫폼, 그 시절 여자친구와 싸웠던 역사 등)들이 서려 있어선지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다들 어디선가 출근들 잘 하고 있지?”



센터빌 빌딩은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과도 연결돼 있어서, 이 시간이면 인근 직장인들의 구두 소리가 지하도를 가득 메웁니다. 지하도 끝까지 다다르면 목적인 센터빌 빌딩에 도착. 지하 아케이드 공간에는 세련된 분위기의 커피숍이나 양복점, 프랜차이즈 외식 브랜드 등이 입점해 있어 오피스 공간 내에서도 외식을 즐길 수 있도록 구성돼 있는데요. 당분간 점심시간마다 행복한 고민에 빠지게 될 것 같은데... ‘그래, 이 고민은 동료들과 함께하고, 일단 2층 로비로 향하는 에스컬레이터부터 타자!’



08:45 _ 2층 스피드 게이트

“출근! 진짜 시작이다!”

센터빌 빌딩으로 이전함에 따라 더욱 강화된 점이 있다면 바로 통합방범 시스템 운영으로 보안 관리와 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곳곳에 보안요원 배치는 물론, 사원증을 찍어야만 스피드 게이트를 통과하여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든든한 환경을 구축하게 되었죠.

11:00 _ 회의실

“프레젠테이션이 술술~”

층마다 중·소 회의실이 마련돼 있어, 부서 회의든 동료와의 아이디어이션이든 편하게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다 보면 자연 채광 덕분에 스포트라이트를 쬐 받는 기분이 든다고나 할까요?



12:30 _ 지하층 카페에서 점심 식사

“가끔은 카페에서 브런치를 즐겨도 괜찮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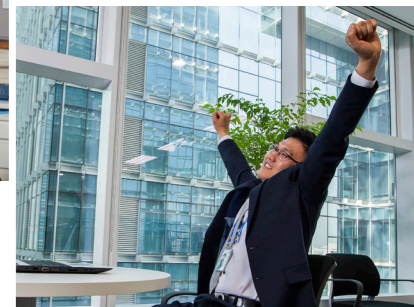
오늘은 가까운 지하 커피숍에서 동료들과 샌드위치에 커피 한 잔! 이곳으로 이전 후 주변 친구들에게 습관처럼 전화를 걸어 을지로, 종로, 명동 일대 맛집이 어딘지 물어도 보고, 점심은 또 무엇을 먹을지, 회식은 어디서 할지 폭풍 검색도 해 본답니다. 괜찮은 맛집이라도 발견하면 직원들과 정보공유도 하죠. 개인적으로 화려한 음식점보다는 오랜 전통의 골목 맛집을 선호하는 편이어서 당분간 매주 한 곳 이상은 방문해 볼 예정이에요.



14:30 _ 사무실

“업무 효율도 UP UP!”

새로운 보금자리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가장 큰 변화. 바로 생기 넘치는 사무실 분위기가 형성되었다고 할까요? 그동안에는 부서가 다르면 이름까지는 미처 알지 못했는데, 이렇게 한 공간에서 함께하며 마주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름도 얼굴도 익혀가는 것 같아요. 같은 회사 직원이라는 유대감도 형성되고요. “OO씨, 여기에는 이 항목을 추가하는 게 어때? 안 풀리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나를 찾으라고! 하하하!”



17:50 _ 사무실

“카~! 퇴근이다”

드디어 내일 회의시간에 보고할 자료 완성!부장님께서 출근하시자마자 확인하실 수 있도록 책상 위에 사뿐히 올려놓으면 끝! “카~! 퇴근이다”

여러분들의 하루는 어떠셨나요? 새로운 동지에서 또 다른 내일을 열어가게 될 SBI저축은행. 이제 더 큰 가치를 창출하는 일만이 저희에게 주어졌네요. 그날까지 SBI저축은행 파이팅! SBI 가족 여러분 모두 힘내세요!

희망 NEWS

2015년 봄, SBI저축은행의 다양한 소식을 전합니다.

본사를 을지로 센터원으로 이전했습니다

지난 3월 9일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을지로 센터원 빌딩으로 본사를 이전했습니다.

그동안 세 개 건물로 나뉘어 근무했던 여러 조직이 하나의 공간에 통합됨으로써 유기적인 협업과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부족했던 사무공간도 확충되고 근무환경도 개선되어 임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은 물론 만족도도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날 임직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사 이전 기념행사를 열었으며, 이를 계기로 저축은행의 한계를 뛰어넘자는 의미로 '저축은행을 뛰어넘는 고객서비스(Beyond Savings Bank)'라는 새로운 슬로건도 발표하였습니다.



대졸 공채 22기 신입사원 입문연수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대졸 신입 공채 150 : 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당당히 합격한 제22기 대졸 공채 신입사원들이 입문연수과정을 마치고 SBI저축은행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저축은행 업계 1위 SBI저축은행의 높아진 위상만큼 어느 해보다 우수한 인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신입사원들은 한 달여간 진행된 직무교육과 인성교육을 모두 마치고 선후배가 함께 하는 워크숍 프로그램으로 입문교육과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선후배가 함께하는 '선자령 트레킹'과 '멤버십 트레이닝' 프로그램으로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선자령(1157m)은 백두대간 능선에 우뚝 솟아 있어 탁 트인 조망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한국의 알프스', '백두대간 전망대'라 불릴

만큼 멋진 풍경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설원 위 이곳에서 정상을 돌아오는 총 11.7km 구간을 22기, 23기 그리고 텔러공채 4기가 함께 완주해 뜨거운 감동을 나눴습니다.

또한 대졸 공채와 텔러 공채 선후배가 함께 멤버십 트레이닝 시간도 갖고, 돌아오는 길에는 경포대 겨울바다에서 SBI저축은행에서의 새 출발에 대한 새로운 각오도 다졌습니다.

저축문화 장려를 위해 SBI저축은행이 '저축하자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2014년 국내 가계 순저축률이 4.5%로 OECD 회원국 평균인 5.4%를 밑도는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국가 경제의 성장동력의 원천인 저축의 의미가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SBI저축은행은 지난 3월 2일 저축 문화를 장려하고자 「SNS다함께 정기적금」을 출시하고, '저축하자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SNS다함께 정기적금」은 SBI저축은행이 운영하는 공식 페이스북, 카카오톡에서 「SNS다함께 정기적금」을 소개한 콘텐츠를 본인의 SNS계정에 공유하면 누구나 0.3%p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금액은 월 10만 원부터 50만 원까지입니다.

SBI저축은행은 '저축은행'을 널리 알리고, 20~40대 경제활동 세대를 주축으로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모바일 SNS를 활용한 다양한 캠페인과 이벤트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SNS다함께 정기적금」 가입 고객 수만큼 재단법인 '연탄은행'에 연탄을 적립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회의 소외계층에게 기부도 할 계획입니다. SBI저축은행과 함께하는 '저축문화 캠페인'! 모바일 SNS를 통해 나의 이웃과 공유하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
SBI저축은행이 저소득층과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희망 정기적금」을 출시했습니다**



목돈 마련 저축을 통해 삶의 희망과 기쁨을 드리고자 저소득층과 사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희망 정기적금」을 출시했습니다. 「희망 정기적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정, 소년소녀가장, 저소득자(연 소득 2,000만원 이하), 새터민, 다문화가정, 재래시장 상인, 기간제 근로자, 학생(초·중·고)이 가입대상이며, 적금 기본금리에 1% 포인트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가입 금액은 월 불입액 1만 원부터 50만 원 이하(단, 학생은 30만 원 이하)며 가입기간은 1년입니다. 저축을 통해 마련된 종자돈(Seed Money)은

재테크의 시작이자 더 나은 삶의 위한 투자원입니다. 저금리 시대, SBI저축은행이 드리는 1% 포인트 우대금리 혜택으로 종자돈 마련의 좋은 기회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SBI저축은행도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분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로! 다 함께! 미래로! 리테일지원사업부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전국 20개 지점 전 직원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가운데 지난 3월 21일 지점관리부는 '하나로! 다 함께! 미래로!' 라는 주제로 리테일지원사업부의 유대 강화와 커뮤니케이션 증진을 위해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1박 2일 동안 진행된 워크숍은 첫날 속리산 등반에 이어 이튿날 CEO 특강, 지점 운영전략 발표, Self-Leadership 교육으로 이뤄졌습니다. 특히 지점 운영전략 발표에서는 수신 기능 중심의 지점 운영의 한계를 뛰어넘어 여신 기능 강화로 Profit Center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는 지점 운영전략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목표달성 의지를 다졌습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지점 직원들이 모처럼 한데 모여 단합하며, 그간 못다한 얘기도 나눌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고객접점 부서인 지점의 열정을 느낄 수 있는 자리였으며,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의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SBI GROUP NEWS

SBI홀딩스, 일본 PCA생명보험(주) 인수로 생명보험 사업 진출



SBI저축은행의 모회사인 글로벌 금융그룹 SBI홀딩스는 금융서비스 사업의 핵심 사업 중 하나로 생명보험 사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일본 PCA생명보험(주)을 인수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월 일본 PCA생명보험(주) 인수와 관련한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았다. 일본 PCA생명보험(주)은 영국 푸르덴셜의 일본 법인으로 SBI홀딩스와 지난 2013년 7월 16일에 주식 100%를 8,500만 달러에 매각하는 M&A에 합의한 바 있다. 한편 SBI홀딩스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자동차 보험을 주력으로 하는 SBI Insurance(손해보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SBI인베스트먼트, '2014년 리그테이블' 벤처 부문 펀드레이징 1위

SBI인베스트먼트는 '2014년 리그테이블 (League Table*)' 벤처 부문 펀드레이징 1위에 오르는 등 독보적인 성과를 창출했다.

이에 SBI인베스트먼트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주최·주관하는 '2015 한국 벤처캐피탈 대상'에서 'Best Fundraising House**'로 선정됐다. 지난해 총 5개의 벤처조합에 총 2,053억 원의 펀드를 결성해 벤처캐피탈 업계 펀드레이징 1위에 오른 점을 높게 평가받은 결과다.

2013년 운용사로 선정된 이후 '미래창조 SBI ASEAN-M&A 투자조합(500억 원)'을 시작으로 8월 'SBI-성장사다리 코넥스 활성화 펀드(400억 원)', 9월 'SBI 글로벌 디지털 콘텐츠 ICT 투자조합(253억 원)'과 '2014 KIF-SBI IT전문투자조합(300억 원)', 12월 '에스비아이 아세안 스프링보드 투자조합(600억 원)'을 잇달아 결성했고, 펀드마다 15~20% 가량을 출자하며 책임 운용을 해왔다.

SBI인베스트먼트는 대한민국 최초의 벤처투자회사로, 1986년 국내 최초로 벤처캐피탈 개념을 도입하며 명실상부한 한국의 벤처기업 파트너로 성장했다. 현재 SBI인베스트먼트의 전체 운용자산 규모는 6,000억여 원 수준이며 2015년에도 PEF와 벤처조합을 통해 투자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 League Table : M&A, IPO 등 자본시장의 부문별 거래 규모 등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순위

** Best Fundraising House : 2014년 주요 기관투자자(LP)로부터 투자받은 자금에 대해 펀딩 금액과 조합 결성 수 측면에서 가장 우수했던 벤처캐피탈에 수여하는 상

신입사원에게 든든한 멘토가 생겼어요!

‘SBI희망이끄미’ 멘토·멘티

지난 3월 9일 ‘SBI희망이끄미’ 멘토·멘티 결연식이 있었습니다. 푸른 봄을 담은 SBI저축은행 신입사원들이 진정한 SBI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선배들이 이들의 출발을 돕고, 또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멘토·멘티로 똘똘 뭉쳤는데요. 봄의 시작과 함께 찾아온 총 18팀, 서른여섯 명의 ‘SBI희망이끄미’ 멘토·멘티, 더 자세히 알아보까요?



Q1. 멘토·멘티 제도가 무엇인가요?

‘멘토’는 스승을, ‘멘티’는 조언을 받는 사람을 뜻하며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일방적인 교육 또는 가르침이 아닌 멘토와 멘티가 서로 소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교류해 신입사원 단기간 적응, 조기이탈 방지, 우수직원 발굴 등 사내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Q2. 회사에 멘토·멘티 제도가 왜 필요한 건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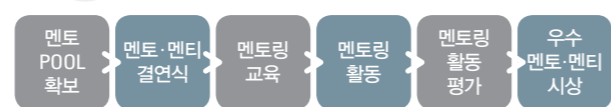
올봄부터 6개월간 진행되는 ‘SBI희망이끄미’ 멘토·멘티는 신입사원의 초기 정착을 돕고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는 데 첫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막 사회인으로서 첫발을 디딘 신입사원들이 조직에 무리 없이 적응하고 업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함입니다. 더 나아가 멘토 역시 멘티와의 교류를 통해 리더십을 개발하고, 업무와 회사생활에 새로운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멘토·멘티의 사내 인적 네트워크를 탄탄히 구축하고 스스로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Q3. 멘토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멘티의 소속 부서에서 지정되는 멘토는 주임급 ~ 대리급 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많은 직원으로만 선정하여 아래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 멘티를 업무적·정서적으로 지원
- 멘티의 업무 관련 문의사항 해소
- 멘티의 업무상 필요한 조직 내 담당자 소개
- 멘티에게 회사의 조직문화 소개
- 멘티의 심리적 안정감 제고 노력

Q4.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SBI희망이끄미’ 멘토·멘티는 인적 네트워킹 및 유대감을 강화하고, 개인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미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SBI희망이끄미’ 멘토·멘티 활동기간 동안 임직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준법감시부 정종덕 주임, 공관호 신입사원 “우리 멘토·멘티 됐어요!”

두근대는 가슴을 안고
준법감시부의 새 가족이 된 공관호 사원.
그를 보며 흐뭇한 ‘아빠 미소’를 짓는 사람이 있다.
바로 공 사원의 멘토로 나선 정종덕 주임이다.
이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미션인 점심 식사를 함께하며
어색함을 떨쳐버리기로 한 두 사람,
과연 누구보다 끈끈한 멘토와 멘티로
거듭날 수 있을까?



지난 3월 9일 ‘SBI희망이끄미’ 결연식을 통해 서로에게 든든한 멘토와 센스 있는 멘티가 되어 주기로 한 두 사람. 때로는 따듯한 충고도, 또 따뜻한 격려도 아끼지 않으면서 6개월간 ‘SBI희망이끄미’를 통해 한 뼘 더 성장할 수 있길 SBI저축은행 임직원 모두 응원하겠습니다.



... 어리바리 신입사원, 일당백이 되려면?

- 정종덕 주임(이하 정) : 관호 씨가 입사한 지 벌써 두 달이 훌쩍 지났네. 회사생활은 어때?
- 공관호 사원(이하 공) : 수많은 금융기관이 모인 을지로에서 근무하다 보니 저도 뛰어난 역량을 갖춘 금융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아직 어려운 부분이 더 많습니다. 특히 타 부서 구성원들에게 업무 협조를 구할 때가 그렇죠. 그때마다 정 주임님께서 많이 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 정 : 인사나 메모 같은 기본적인 것들에 충실하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거야. 특히 신입사원이라면 메모를 더 철저히 해야 해. 일이 서툴러서 하게 되는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고, 또 신입이라도 메모를 하지 않아서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모습은 별로 보기 좋지 않거든.
- 공 : 네. 명심할게요. 지금 하신 말씀도 적어놔야 할까 봐요.(웃음)

... 2% 부족한 우리 사이, 가까이 더 가까이!

- 정 : 멘토, 멘티라면 업무적인 대화 외에도 유대감을 더 끈끈히 쌓아야겠지? 나는 관호 씨가 단순히 직장 후배라기보다 사회생활에서 만난 좋은 인연이라고 생각해. 우리의 인연이 서로에게 시너지를 발휘하는 원동력이 된다면 참 좋겠어.
- 공 : 저도 같은 생각이예요. 개인적으로 회사생활을 하게 되면 상사와 함께 등산을 꼭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친밀감이 다질 수 있고, 더 진솔한 대화도 하고요. 요즘에 날씨도 좋은데, 같이 가주실 거죠?
- 정 : (고민하다 결심한 듯) 그래. 마침 멘토링 두 번째 미션이 ‘여가활동 함께하기’네. 내가 관호 씨를 위해서 그 정도도 못 해줄까. 그런데 산은 회사에서 가까운 남산으로... 괜찮지?

... Thanks to you! 서로에게 보내는 한마디

- 정 : 첫 사회생활을 시작한 관호 씨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참 많아. 직장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에티켓이나 부서 내외에서의 커뮤니케이션 방법 같은 것들? 내 경험이나 노하우를 통해서 관호 씨가 SBI의 진정한 일원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아.
- 공 : 이번 ‘SBI희망이끄미’ 멘토·멘티를 시작하면서 참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좋은 기회를 마련해주신 회사나 저를 이끌어주시는 주임님께 감사한 마음뿐이에요.
- 정 : 나도 관호 씨와의 멘토링을 통해 자극받을 때가 많아. 공동체란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관계 아닐까? 왜, 그런 말 있잖아.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는 이야기.
- 공 : 네. 저도 SBI저축은행 신입사원으로서 모두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아직 서툴지만 열심히 배워 나가려고요. 우리 모두 멋진 멘토·멘티가 되었으면 합니다!

SBI저축은행의 가족이 된 새 얼굴을 소개합니다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슴 벅찬 일이다. 2015년의 파스한 봄날, SBI에서 새 출발하는 9인의 주인공을 만나보았다. SBI로 인해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지, 또한 그들을 통해 SBI가 어떤 모습으로 발전하게 될지 기대해보며 당찬 포부를 들어 본다.

Question

- 1 소속 부서와 담당 업무를 알려 주세요.
- 2 자신이 경험한 '삶의 변화' 또는 '인생의 전환점'이 있다면?
- 3 SBI저축은행에 입사한 것은 자신의 인생에서 어떤 의미인가요?
- 4 SBI저축은행에 입사한 후 전 직장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것들이 달라졌나요?
- 5 "2015년, 올 한해 이것만은 꼭 이룰 것이다" 자신이 이루고픈 변화가 있다면?
- 6 SBI저축은행에서의 목표와 각오를 들려 주세요.



[여신영업2부] 최종순 부장

- 1 여신영업2부에서 기업의 다양한 니즈를 파악하여 자금을 공급하는 기업 전문 여신영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2 지금이 인생의 전환점이라 생각합니다. 업무에서는 전투적이고 동료 간에는 가족처럼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는 저희 직원들을 보며, 이들을 책임감 있게 이끌고 보살펴야겠다는 생각이 든답니다.
- 3 기존 '저축은행'의 고정관념을 탈피하며 새롭게 도약하는 SBI저축은행을 보며, 마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려는 저와도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SBI인이 되는 데 도전했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새로운 시도가 무의미하지 않게 열심히 정진하고 있답니다.
- 4 아무래도 저축은행만의 업무규정과 프로세스를 따르면서 업무를 한다는 것이 기존에 제가 하던 영업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증권사에서와는 달리, '내 스타일을 저축은행화, SBI화' 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다소 어색하게 느껴졌지만 현재는 직원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점차 SBI인으로 변해 가고 있는 듯 합니다.

- 5 회사와 가족을 책임질 수 있는 건강한 몸을 만들고 싶습니다. 한 가족의, 그리고 한 부서의 가장으로서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 몸이 건강해야 할 테니까요.
- 6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과 열정을 다하여 SBI저축은행이 한걸음 더 발전하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IB부] 황도선 차장

- 1 IB부에서 구조화 대출, 회사채 인수, 메자닌, 지분 등 투자 및 사후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2 결혼과 자녀 출생으로 인해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게 된 거 같아요. 특히 '가장'이 되면서 삶을 대하는 태도부터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 3 SBI저축은행에서의 생활은 고객의 금융 플랜을 설계해드릴 뿐만 아니라 제 인생 또한 재설계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 4 SBI로 오면서 전보다 야근이 줄어들어 퇴근 후의 삶이 좀 더 풍요로워지게 됐죠. 그리고 저만의 아늑한 개인 공간이 생겨 소박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 5 야근이 줄어들 여가가 늘어난 만큼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체중 감량 및 건강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6 관계법령, 규정 등 업무 관련 지식뿐만 아니라 산업, 경제, 인문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배양하고, 이를 통한 지식의 네트워크 강화로 능력 있는 관리자로 성장하여 회사와 업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실무자로 입지를 굳힐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총무부] 조옥상 과장

- 1 총무부에서 총무 총괄로서 회사의 환경을 두루 살피며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2 아버님의 작고 후 제 삶이 가장 크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받아들이지 않았던 아버님의 당부나 여러 말씀들이 다시금 생각나게 되고 또한 제 삶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 3 전 그동안 관련 업계에서 종사했던 게 아니라서 SBI저축은행에서의 새 출발이 어쩌면 모험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맡은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할 만반의 준비와 당찬 각오로 제2의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전환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 4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SBI저축은행답게, 역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직원들 또한 SBI인으로서 자부심과 애사심을 갖고 업무환경에 다 같이 신경을 쓰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제는 저도 그 일원이라는 사실이 기쁘고요.

5 제가 위치한 곳에서, 맡은 업무에서 최대한의 성과를 이루고 싶습니다. 때론 서투른 면도 있겠지만 실수에 대한 질책이 두려워 소극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적극적인 마인드로 업무를 진행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싶습니다.

- 6 회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회사 또한 저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도움을 주며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재정부] 이재범 대리

- 1 재정부에서 각종 세무 및 경비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회사의 살림을 챙기고 있습니다.
- 2 회계와 세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준비하게 된 세무사 시험에 당당히 합격한 순간입니다.
- 3 기존 저축은행의 틀과 관념을 뛰어넘어 새롭게 도약하는 중요한 시점을 보내고 있는 SBI저축은행처럼 저 또한 새로운 조직에서 생활을 시작하며 더 나은 저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 4 기존 직장과는 달리 SBI저축은행은 큰 조직인 만큼 많은 구성원들과 체계화된 프로세스로 움직인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 5 무엇보다도 새로운 조직에 합류하게 되었으니 환경에 잘 적응하고 싶고요, 개인적으로는 금연에 반드시 성공하는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6 회사의 세무 담당자로서 SBI의 역량 있는 세법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청담지점] 김덕현 과장

- 1 청담지점에서 여신업무를 담당하며 고객을 돕고 있습니다.
- 2 2013년 말 득녀하게 되면서 딸바보 아빠가 된 일이 인생의 주요한 전환점인 것 같습니다.
- 3 간절히 원했던 SBI저축은행에서의 생활은 매우 감사한 기회고 새로운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 4 조직이 체계적으로 운영되면서도 업무의 유연성이 있어 효율적인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5 새 일터에서 성공적으로 뿌리내려 SBI의 든든한 일꾼이 되는 한 해가 되길 바라고, 개인적으로는 둘째 자녀를 바라답니다 (웃음).
- 6 회사에 반드시 필요한 인재로서 인정받고 싶습니다.



[리테일영업2부] 조선미 사원

- 1 리테일영업2부에서 O/B 운영을 지원하며, 추가·재대출 영업현황 분석과 신규 DB 확대 방안, DB 품질분석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2 저는 남들보다 조금 일찍인 대학교 여름방학 때 처음 '사회'를 접하게 되었고, 이제 또 새로운 곳에서 제2의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들 속에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 3 제 인생의 또 다른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은 기회를 잡은 만큼 최선을 다해 일하고 싶은 마음으로 무척 설렘니다.
- 4 SBI저축은행에서는 상담원들과 바로 옆에서 함께 일하면서 그들이 어떤 식으로 O/B를 진행하는지 직접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 5 새로운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며 안정된 모습을 갖추고, 자기개발에도 신경 써서 제 가치를 높이고 싶습니다.
- 6 SBI저축은행에서 다양한 업무를 습득하고 관련 자격증도 취득하여 성취감도 높이면서 믿음직한 인재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의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들 속에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수지점] 박성준 주임

- 1 이수지점에서 고객의 요구사항을 적절히 해결하는 여신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2 대학 졸업 후 겪었던 11개월간의 구직활동이 제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그 가운데 많은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게 되어 오늘의 제가 있게 되었습니다.
- 3 은행원으로서의 '재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다익선이라고, 또 하나의 경력이 더해지는 뜻깊은 순간이기도 하고요.
- 4 "익숙한 듯 익숙하지 않은~♪" 계절단말이요!
- 5 제가 설정한 구체적인 목표는 토익 850점 이상, 신용분석사 자격증 취득입니다. 반드시 성취할 거예요!
- 6 제 좌우명이기도 한, '필요한 사람이 되자!'입니다. SBI에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인천지점] 양준석 주임



- 1 인천지점에서 여신영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2 SBI저축은행에 입사한 것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곳에서의 미래를 신중하게 그려보는 계기가 되었어요. 마음가짐부터 달라졌죠.
- 3 SBI저축은행에 입사하고자 지원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제가 선택받았다는 사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회사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앞으로 차차 증명해 보일 거예요.
- 4 지점장님과 함께 인천지점 여신영업 활성화를 고민하면서 전과는 다른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적 달성이라는 목표를 향해 매일 최선을 다하는 우리 지점 식구들을 보면서 저도 더욱 분발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됩니다.
- 5 둘째가 100일이 지나면 조금 시간이 나지 않을까 기대해 보며, 반드시 영어회화를 마스터하겠다는 불굴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 6 다양한 여신을 취급하고 경험함으로써 여신을 보는 정확한 눈을 가진 전문가가 되고자 합니다.

[광주지점] 서은경 주임

- 1 광주지점에서 수신창구 텔러와 여신업무를 담당하며 발 빠르게 고객들을 응대하고 있습니다.
- 2 SBI저축은행에 입사한 것과 동시에 결혼하게 된 일이 제 인생의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최근 들어 주변의 모든 상황이 바뀌어 어리둥절하면서도 마냥 신나고 기분 좋습니다.
- 3 SBI저축은행에서의 새로운 생활은 제 시야와 삶의 지평을 넓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4 이제까지 수신창구 텔러만 경험했는데, SBI저축은행에서는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고 있어 만족스럽습니다.
- 5 육아에도 충실한 슈퍼 워킹 우먼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우선 체력부터 건강하게 관리해야 할 것 같네요.
- 6 모든 직장인들의 공통 목표죠. 바로 열심히 일해서 당당히 승진하는 것입니다. SBI 식구들 모두 파이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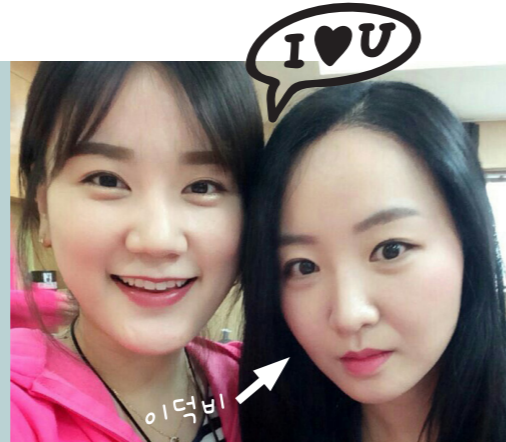


너의 셀피를 보여줘!

셀피Selfie란 휴대전화로 자신을 직접 촬영하는 '셀카(셀프 카메라)'의 미국식 표현으로, 2013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은 '셀피'를 올해의 단어로 뽑아 사전에 등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였습니다. 평범한 우리가 한 장의 사진으로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코너! SBI의 소중한 순간을 맛깔난 셀피에 담아서 야심차게 공개합니다.

WHO 마포지점 이덕비 사원
WHEN 2014년 12월 4일
WHAT

신입사원 합숙교육 중 사랑스러운 동기 강남지점 이원영 사원과 함께!
이제 진정한 SBI이다. 야호!!



WHO 목동지점 하유리 사원
WHEN 2014년 10월 24일
WHAT

에버랜드에서 친구와 함께 할러윈 데이를 즐겼습니다.
할러윈하면 좀비 분장을 빠뜨릴 수 없겠죠?
표정을 켈하게- 좀비처럼 해주는 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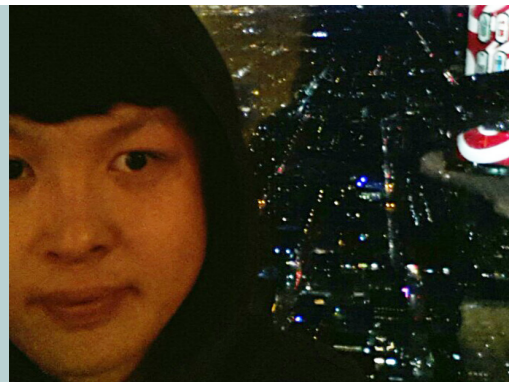
WHO 대구지점 최지혜 사원
WHEN 2014년 2월 대학 졸업식날
WHAT

마지막이니만큼 간만에 멋진 의상을 차려 입고, 풀메이크업 하고 찍었습니다.
조명은 자연광이 최고!
자연광이 어려우면 요즘에는 좋은 보정 어플이 많아서 이용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WHO 정보시스템실 박영록 사원
WHEN 2014년 어느 날
WHAT

캐나다 토론토에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야경을 배경으로 하고 시선은 저 멀리 그윽하게, 그리고 미소 살짝 배경은 살리고, 저도 등장한 여행샷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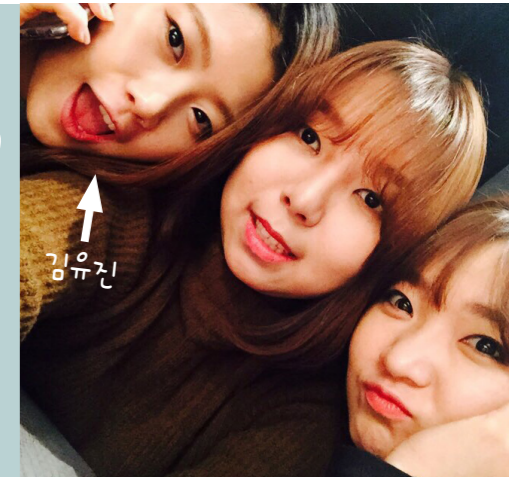
WHO 리테일기획부 임리나 주임
WHEN 2015년 3월 어느 봄날 주말
WHAT

따뜻해진 날씨, 그냥 흘러 보내기 아까워서 친구들과 나들이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헤어지기 아쉬워서 치느님을 영접하러 Go!
사진은 배고픔 속에서도 평온하게 찍었어요~
사진이 잘 나오고 싶다면, 정면보다는 왼쪽이나 오른쪽 얼굴 중 더 잘 나오는 쪽을 확인한 뒤, 턱을 아래로 살짝 당기고 예쁜 척^^
셀피 찍기 어렵지 않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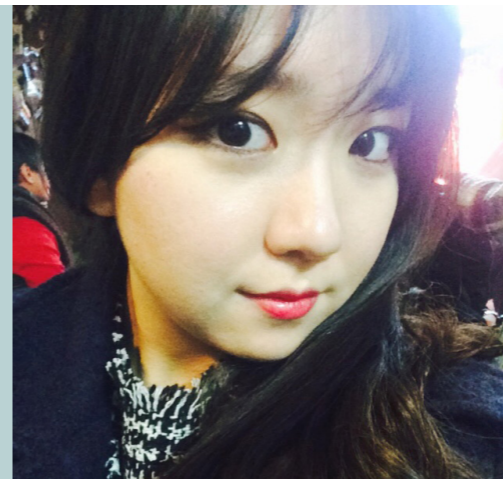
WHO 홍보부 김유진 사원
WHEN 2015년 1월 25일
WHAT

친구가 셀피 찍을 때 살짝 곱사리 꺼서 찰칵!
소품으로 자연스럽게 얼굴을 가려 '의도된 듯' 연출하는 것도 예쁘게 찍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 한 손으로 셔터 버튼을 누르다 흔들린다면 이때는 셀프타이머 기능을 써보세요.
충분한 시간 동안 촬영에 대비할 수 있거든요.
이때, 표정은 사진이 찍히기 1~2초 전에 지어야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다는 점!



WHO 포항지점 해주영 사원
WHEN 2015년 어느 금요일 저녁
WHAT

금요일 저녁,
신나는 마음에 퇴근하면서 찰칵 했어요!
저의 비법은 고개를 좌우로 15도 가량 돌리고 눈을 부릅!
그래야 나인 듯, 나 아닌, 나인 것 같은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실물과 많은 차이가 있는 건 함정!



WHO 총무부 김경민 사원
WHEN 2014년 어느 무더운 여름날
WHAT

기분 전환 겸 집 근처 미용실에 들러 젊어 보이고자 파마를 시도했습니다.
남자라면 역시 셀피는 정면샷!
안 그래도 동안으로 봐주시는데,
파마하고 난 다음날 출근하자마자 인기 폭발이었답니다^^
누가 저를 유부남이라고 볼까요. 하하하하하하하



SBI의 도약을 책임지는 파트너 지점관리부 & 홍보부

거친 회사 밖과 홍보의 제일선에서 SBI저축은행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두 부서가 있다. 바로 업무 접점에서 환상의 시너지를 내고 있는 '홍보부'와 '지점관리부'다. 그동안 직원들이 이들 두 부서에 궁금했던 점, 그리고 형제 같은 두 부서가 서로에게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나누었다.

철두철미, 능력 만점! 지점관리부 이야기



지점관리부의
2015년 대표(목표)
키워드



고객

지점

방카슈랑스

Q 각종 상품이 정리되어 있는 방문객용 팸플릿을 제작하여 각 지점마다 구비하였으면 합니다. 인쇄홍보물 제작 시 지점 의견도 반영이 가능한가요?

A 당연하죠! 지점에 비치되는 리플렛이나 카탈로그는 지점의 의견이 반영됩니다. 전사적으로 진행되는 홍보물은 디자인부터 심의, 발주까지 지점관리부에서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지점별로 만드는 홍보물에 대해서는 해당 지점이 특색에 맞게 디자인 및 제작하고 있죠.



Q 그렇다면 인쇄광고물 제작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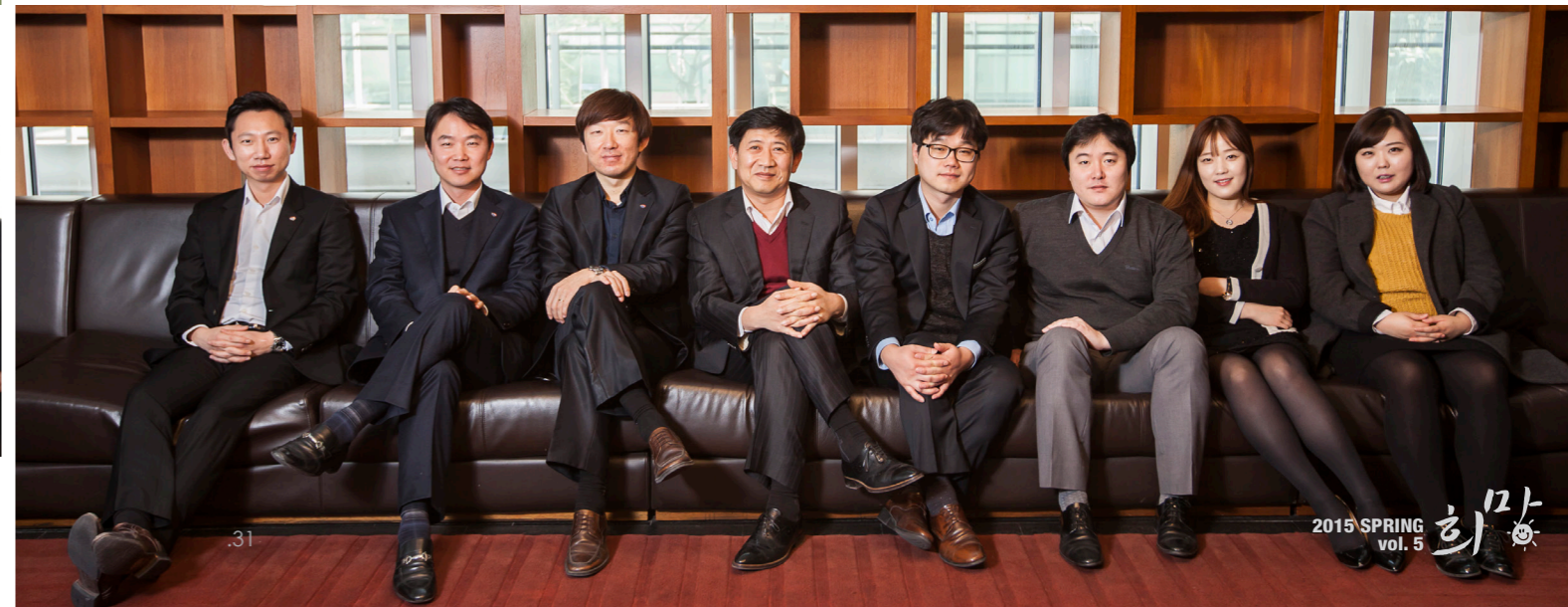
A 그동안 홍보물을 가볍게 보셨을 텐데요. 한 장의 홍보물을 만드는 데에도 5개의 업체 및 부서가 함께 한답니다. ①홍보물을 만들고자 하는 부서 ②홍보물을 직접적으로 제작하는 디자인 업체 ③홍보부 ④준법감시부 ⑤저축은행중앙회가 바로 그곳이죠.

먼저 홍보물을 만들고자 하는 부서에서 디자인 업체에 의뢰를 하여 디자인 작업을 하고, 이렇게 완성된 시안은 홍보물을 의뢰한 부서에서 준법감시부에 내부심의를 요청합니다(지점의 경우, 지점관리부에서 내부심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후 내부 심의가 나오면 내부 심의번호와 함께 홍보부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홍보부에서 중앙회에 심의를 의뢰한 후, 결과가 나오면 홍보물 의뢰 부서에서 디자인 업체에 발주를 넣어 인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제작된 인쇄물은 각 부서 및 지점에 배포되어 고객에게 상품 안내 역할을 톡톡히 한다는 것! 홍보물이 나오기까지는 대략 영업일 기준으로 10일 정도 소요되므로, 이 점을 감안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Q 평소 지점을 방문하는 고객의 불만사항이나 직원들의 영업환경 및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건의사항을 공유할 수 있는 채널이 다소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점관리부와 지점(방문고객)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창구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가요?

A 현재 우리 은행에 대한 전반적인 문의사항이나 상품 문의의 경우, SBI저축은행 공식카페에서 실시간으로 고객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점을 방문하시는 고객님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해결을 위해 해당 지점 현장에서 직접 처리하며, 홈페이지 내 '고객의 소리'를 통해서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확인된 불편사항은 개선방안을 바로 검토하죠.

저희 지점관리부에서는 지점 직원에 관한 건의 및 불편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인제나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리테일지원사업부 워크숍도 직원들의 생각과 의견을 공유하고자 마련했던 자리고요, 앞으로도 지점 직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자주 갖고, 이를 통해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여 더 발전된 지점 환경과 저축은행을 뛰어넘는 최적의 고객서비스를 선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젊은 감각과 열린 소통, 홍보부 이야기



간혹 고객들이 “저축은행이 뭐예요?”, “이런 상품도 판매하는구나!” 라는 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축은행에 대한 인지도가 기대만큼 높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까운데요. 우리의 상품(BI) 광고는 TV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지만, 기업 이미지(CI) 광고는 볼 수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기업 이미지 광고에 대한 계획이 궁금합니다.

객관적으로 ‘저축은행’에 대한 고객 인지도는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SBI저축은행으로 사명을 바꿀 때 CI광고를 일정기간 진행한 바 있지만, 현재는 상품브랜드 이미지를 알리는 데 보다 집중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업 이미지 TV광고도 진행하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상품브랜드를 더욱 널리 알리고 영업 실적 개선을 통한 수익을 증대해 나가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추후 안정적인 수익기반이 마련되면 기업 이미지 광고도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최근 저축은행 중앙회 차원에서 ‘저축은행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목표로 다양한 고객 홍보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친서민금융기관으로서 저축은행의 역할, 금융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이미지 광고도 조만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홍보부도 중앙회와 함께 저축은행을 널리 홍보하고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할 예정입니다.

홍보부가 지점관리부에게 바란다!

상품 개발 시 향후 홍보 방안까지 고려해서 만들면 더욱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개발 단계에서부터 홍보와 접목해 이슈화한다면 고객의 이목을 끌면서 긍정적인 성과도 달성할 수 있을테니 말이지요. 상품 개발하실 때 홍보부도 많이 괴롭혀 주세요^^; 또한 홍보부와 지점관리부는 지점 내외 인쇄광고를 제작을 비롯하여 옥외광고, 온라인 커뮤니티 내 공지 작업 등 업무상 교류가 많은데요. 이때, 내용과 레이아웃 등을 정하고 홍보팀에 요청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은 콘텐츠를 전달드릴 수 있어요. 늘 저희 홍보부에 많은 도움 주시고, 전국 20개의 지점과 100여 명이 넘는 지점장 및 직원을 지원하고 관리하시느라 힘드실 텐데요, 홍보부가 언제나 응원하니,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하실 때 문 두드려 주세요.

오늘도 파이팅!

TV나 인터넷 등 주위에서 SBI저축은행의 광고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광고를 볼 때마다 ‘우리 홍보부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감사를 느낍니다. 앞으로도 SBI저축은행의 홍보와 더불어 전국 지점 홍보에 보다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점관리부도 당행 및 지점의 홍보를 위해 홍보부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홍보부에 인쇄홍보물과 관련된 중앙회 심의가 들어가면 시간이 다소 소요되고 있어, 심의표준안 및 중앙회 건의를 통해 심의 시간을 보다 단축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마련된다면 더욱 원활한 진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상부상조해요, 우리!

지점관리부가 홍보부에게 바란다!

Q TV를 보다 보면 우리 광고가 심심치 않게 보이는데요. 그때마다 ‘저런 아이디어는 누가 냈을까? 그리고 촬영은 어떻게 진행될까?’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광고가 탄생하기까지의 과정과 광고 효과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A 먼저 광고 제작 과정을 말씀드릴게요. 심심치 않게 보이는 우리 광고, 그 과정 또한 심심치 않죠. 시장을 분석하고, 고객을 유혹할 뻔해지는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기 위해 수많은 고민의 시간과 회의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새벽까지 이어지는 촬영 등 광고의 탄생 과정에는 수많은 긴장과 다이내믹한 순간(물론 때로는 지루하기도..)이 계속되죠.

TV광고 제작은 크게 기획(전략·스토리보드 제작) → 기획안 발표 → 사전 제작 미팅(모델 선정, 세부 촬영 계획 등) → 촬영 및 편집 → 시사 및 광고 On-air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사실 단계 사이사이에 무수히 많은 일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단 몇 줄로 끝내긴 부족하죠. 백문이 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 다음 광고 제작 때에는 현장에 한번 참여해 보시겠어요? 관심 있으시다면 홍보부로 연락주세요. 함께해요~!

다음으로 광고 효과가 궁금하다고 하셨죠? 저희 홍보부에서는 광고가 잠재 고객에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노출되는지, 우리 브랜드가 소비자에게 어떻게 인지되고 있는지 등을 대내외 공신력 있는 데이터와 소비자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분석·개선해 나가고 있어요. 그 결과 ‘SBI저축은행’의 소비자 인지도는 업계 1위라는 위상에 걸맞게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효율 개선을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언제나 관심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Q 웹진 <희망> 덕분에 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나, 동료 선배들의 소식들을 접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또, 다양한 직원 참여 프로그램이 있어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지금보다 더 창의적인 프로그램으로 많은 직원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으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A SBI저축은행 웹진 <희망>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웹진형 사보’라는 슬로건으로 임직원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공간입니다. 창간 이후 5호까지 제작하면서 직원 간 소통의 매개체 역할을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임직원 여러분의 관심이 다소 부족하거나 바쁜 업무로 인해 참여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개편된 5호를 시작으로 임직원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을 확~ 끌어낼 수 있는 참신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웹진 <희망>은 언제나 열려 있으니, 임직원 여러분께서 알차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6명의 스파이더맨, 짜릿한 스포츠 클라이밍에 도전하다!



(왼쪽 좌측에서부터) 박주형 대리, 원선재 대리, 서정민 지점장 (아랫줄 좌측에서부터) 이종욱 대리, 최유진 사원, 유정은 주임

겨우내 움츠러들어 있던 심신을 깨우기 위해 SBI저축은행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부서도, 직급도 모두 다르지만 끈기 하나로 뽕뽕 뭉쳐 '스포츠 클라이밍'에 출사표를 던진 이들. 도전 정신을 활활 불태우며 암벽 정복에 나선 6명의 스파이더맨을 만나보자.

암벽 등반도 한 걸음부터! 쭉쭉 스트레칭



몇 년 전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스포츠 클라이밍. 우리에게 '암벽 등반'이라는 명칭으로 더 익숙한 이 운동에 SBI저축은행 직원들이 도전했다. 실내 클라이밍 센터로 들어서서 서정민 과장과 박주형, 이종욱, 원선재 대리 그리고 유정은 주임과 최유진 사원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하다. 벽면을 따라 촘촘히 박혀 있는 홀드를 보며 "과연 내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최유진 사원. 체력이 약해 고민이라는 그녀는 앞으로 클라이밍을 제대로 배워볼 요량으로 이번 체험을 신청했다. 처음에는 걱정이 앞



끝까지 올라갈테다!



섰지만 체구가 작고 몸이 가벼울수록 유리하다는 강사의 말에 최 사원의 얼굴이 한결 밝아진다.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다시 만난 이들은 본격적인 클라이밍을 시작하기도 전에 난관에 부딪혔다. 저마다 적당한 암벽화를 찾아 신었는데, 일반적인 신발보다 사이즈가 작아 불편하기 그지 없었던 것. 하지만 암벽 등반을 할 때는 발끝이 갈고리 모양으로 모아져야 힘을 잘 줄 수 있다는 설명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이어진 스트레칭 시간. 주로 사무실에 앉아 있느라 뻣뻣해진 근육을 이완하는 것은 안전을 위한 필수과정이다. 강사의 동작을 따라 하는 원선재 대리의 입에서 "어이구" 하는 신음이 절로 난다. "평소에 운동 좀 해둘 걸, 스트레칭부터 이렇게 힘들어서야 어떡하죠?" 팔다리를 쭉쭉 늘리는 일이 버겁기는 다른 이들도 마찬가지. 여기저기서 앓는 소리가 이어지다 곧 멧쩍은 웃음소리로 바뀐다.

거침없이 빠져드는 클라이밍의 매력

한바탕 스트레칭이 끝난 뒤, 이제 본격적으로 클라이밍에 도전! 자유자재로 몸을 놀리는 강사의 시범에 모두 입을 떡 벌린다. 초심자인 이들의 눈에는 오늘 정복해야 할 암벽이 거친 에베레스트나 다름없다. 첫 번째 도전자는 맨 앞자리에 앉아 있던 박주형 대리. 앞에 앉은 게 잘못이라며 불멘소리를 했지만 막상 암벽을 마주하니 눈빛부터 달라진다. 강사가 지정해주는 홀드를 손발로 짚고 조금씩 이동하는 그의 모습을 보며 동료들은 뜨거운 응원을 보냈다. 스포츠 클라이밍은 팔다리의 힘도 중요하지만 허리의 무게중심을 잃지 않는 것이 관건. 다소 서툴지만 팔, 다리, 팔, 다리의 순서로 축을 이동하며 몸을 움직이는 박 대리의 표정이 진지하다. 이어서 도전한 유정은 주임은 몸놀림이 날쌔다. 머뭇거리지 않고 성큼성큼 앞으로 나아간다. 운동 마니아라 사내에서 '헬스보이'로 통한다는 유 주임은 단숨에 고지를 찍고 내려왔다. 이어서 이종욱, 원선재 대리 역시 큰 키를 이용해 손쉽게 첫 번째 코스를 끝냈다. 뜻밖에 오늘의 다크호스는 호리호리한 체형의 서정민 과장. 이를 악물고 홀드에 올라선 그녀는 키보다 훨씬 높은 곳까지 올라 겁이 날만도 한데, 암벽에서 서서 '브이'를 그리는 여유까지 보인다. "클라이밍은 처음이지만 다른 운동 못지않게 재밌네요. 맨몸으로 극한에 도전한다는 점이 매력적이네요."



그녀의 말처럼 클라이밍은 사람의 몸을 도구로 삼아 중력을 거스르는 스포츠다. 따라서 근력 강화에 탁월한 것이 특징. 들이는 시간에 비해 운동 효과가 크고, 실내 암벽장을 이용한다면 공간의 제약도 없어 직장인에게 안성맞춤이다. "사무실을 벗어나서 오랜만에 땀 흘리고 몸을 움직이니 기분이 좋습니다." 모두 생기 넘치는 표정으로 다음 코스에 대한 의지를 불태웠다.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리다

이번에는 지금까지 배운 것을 바탕으로 혼자서 등반해 보기로 했다. 같은 색깔의 스티커를 따라 이동하다가, 가장 꼭대기의 홀드를 손으로 붙잡는 것이 목표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높이에 침을 꿀꺽 삼키는 도전자들. 모두 망설이는 가운데 유장은 주임이 처음으로 나섰다.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다 드디어 마지막 홀드만을 남겨둔 상황. 몸의 탄성을 이용해 도약하려 자세를 낮추는 그를 보며 동료들은 “파이팅!”을 외쳤다. 온 힘을 다해 점프했지만 아깝게 실패한 유 주임, 얼굴에 아쉬운 표정이 번진다. 이어서 박주형 대리와 이종욱, 원선재 대리도 도전했지만 모두 줄줄이 매트에 떨어졌다.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고 입을 모은 이들은 실패의 원인으로 ‘두려움’을 꼽았다. 발이 홀드에서 떨어지는 순간, 덜컥 무서운 생각이 들어 멈칫거리게 된다는 것.

반면 서정민 과장과 최유진 사원은 목표지점까지 무사히 도착했다. 남자들보다는 난이도가 낮은 코스지만 이들 역시 이를 악물어야 할 만큼 힘에 부치는 운동이 바로 클라이밍이다. 온몸의 근육을 쓰는 동시에 균형감각을 유지하고 배짱까지 갖춰야 진정한 ‘클라이머^{Climber}’로 거듭날 수 있다.

잠시 숨을 고른 유 주임이 재도전에 나섰다. 전과는 사뭇 달라진 눈빛으로 손발을 움직이는 유장은 주임. 그가 아까와 같은 지점에 도착하자 실내에는 묘한 긴장감마저 흐른다. 도약 직전에 잠시 멈춤, 그리고 점프! 결과는 성공이다. “한 번 실패하고 나니까 승부욕이 마구 끓어오르던걸요. 나를 뛰어넘는 도전을 즐길 수 있는 게 바로 클라이밍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가 확 풀리네요.”

멋지게 성공한 유 주임을 향해 박수가 쏟아진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모두 하나의 목표를 바라보며 땀 흘렸던 오늘. 성공과 실패를 떠나 짜릿함을 만끽하며 자신의 한계에 도전했기에 가슴은 뿌듯함으로 가득 찼다.

체험이 끝난 뒤 소감을 나누는 이들에게서 움츠러든 초심자의 모습은 사라진 지 오래다.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오늘의 기억을 떠올리며 극복하겠다는 6명의 스파이더맨. SBI사다운 끈기와 배짱으로 멋진 회사생활을 펼쳐나갈 이들의 앞날이 기대된다.

Mini Interview



마포지점 서정민 과장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클라이밍과 회사생활이 무척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회가 된다면 암벽 등반을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정보시스템실 박주형 대리

집 앞 공원의 인공 암벽을 눈여겨보던 차에 이번 체험을 신청했어요. 몸이 힘들기는 했지만 보람이 더 크네요. 열심히 운동하다 보면 혼자서 암벽 등반에 성공할 날이 오겠죠?



정보시스템실 원선재 대리

처음에는 “이게 과연 재밌을까?” 의문이 들었어요.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시간 가는 줄도 모를 정도로 푹 빠져들었네요. 평소에 운동 좀 해둘 걸 아쉬운 마음이기도 합니다.



CSS부 이종욱 대리

클라이밍도 난이도에 따라 레벨이 나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나중에 다시 등반을 하게 된다면 더 높은 단계에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소호영업부 유장은 주임

클라이밍은 처음보다 두 번째, 두 번째보다 세 번째에 더 승부욕이 생기는 운동인 것 같습니다. 컨디션이 좋았다면 첫 번째 도약에서 성공했을 텐데 아쉬움이 남아요.



총무부 최유진 사원

팔다리가 덜덜 떨렸지만 재미있었어요! 체력을 기르는 데는 암벽 등반이 제격이라는 강사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본격적으로 배워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SBI '가족 힐링 프로젝트'

김남열 부장 가족의 파주출판단지 나들이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3월의 첫날, 김남열 부장(CSS부) 가족이 특별한 주말 나들이에 나섰다. 아빠 김남열 부장과 엄마 최승훈 씨, 첫째 경래(12·남), 둘째 태은(6·여)이 설레는 마음을 싣고 향한 곳은 파주출판도시. 아이들에게는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시간이, 엄마 아빠에게는 추억과 힐링의 시간이 되었던 책과의 하루에 동행했다.

울창한 책의 숲, 지혜의 숲 도서관

경기도 파주시 문발동에 위치한 파주출판도시에는 200여 개의 출판사와 개성 만점의 북카페, 다양한 문화공간이 거미마다 즐비하게 들어서 있는 곳이다. 덕분에 서울 외곽에 위치한 지리적 단점에도 불구하고, 주말이면 책 나들이를 나온 가족들과 연인들로 늘 북적인다.

“한 번쯤 와보고 싶다는 생각은 했었는데, 집이 분당이다 보니 쉽지 않더라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 파주출판도시를 구경하게 되어서 좋습니다.”

체험 장소가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파주출판도시라 바로 신청을 했다는 김남열 부장. 아이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물하고픈 아빠의 마음을 아는 것일까. 이색적인 건물들로 가득한 파주출판도시의 풍경에 경래와 태은이도 호기심 어린 눈망울을 반짝인다. 파주출판단지에 입성한 가족들이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지혜의 숲' 도서관. 지난 2014년 6월에 개관한 이 도서관은 책의 아카이브이자 열린 도서관을 표방하는 곳으로, 총 3개의 공간으로 특색있게 구성되어 있다. 도서관의 첫 번째 공간인 '지혜의 숲 I'로 들어서자, 높이 8m에 달하는 웅장한 서가가 가족들을 맞이한다.

"와, 애들이 저 책들 좀 봐!"

상상을 뛰어넘는 도서관의 규모에 탄성을 내뿜는 김남열 부장과 최승훈 씨. 경래와 태은이도 고개를 한껏 젓히고 천장까지 닿아 있는 서가 사이를 누빈다. 서가 면적 1244㎡, 총 50여만 권의 장서 보유라는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는 지혜의 숲 도서관. 그중 카페테리아와 어린이 책이 있는 '지혜의 숲 II'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 책을 읽기에 최적의 공간이다.

김남열 부장 가족도 이곳에 자리를 잡고 본격적인 독서를 하기로 했다. 경래가 골라든 책은 최근 빠져있다는 학습만화 시리즈다. 자리에 앉아 금세 책에 몰입하는 오빠를 뒤따라 동생 태은이도 예쁜 표지의 동화책을 고른다. 태은이가 고른 책을 다정한 목소리로 읽어주며 딸의 독서를 돕는 엄마 최승훈 씨. 김남열 부장 역시 흥미가 가는 책들을 골라 읽으며 모처럼의 여유를 만끽한다. 같은 공간 안에서 저마다의 책 속 세상으로 빠져든 가족들. 네 식구의 달콤한 주말이, 풍성하고 여유로운 독서의 시간으로 채워지기 시작한다.





책 여행도 식후경, 즐거운 점심시간

마음의 양식을 가득 채웠으니 이제 배를 든든하게 채울 차례다. 파스타와 리조또로 허기진 배를 달래며 점심 식사를 하는 김남열 부장 가족. 맛있는 음식 앞에서 도란도란 이야기꽃도 절로 피어난다.

지난 2002년 부부가 된 김남열 부장과 최승훈 씨는 대학시절 향우회에서 처음 만났다. 강원도 강릉이 고향이던 두 사람은 같은 초등학교 출신이라는 공통점까지 공유하며 더욱 가까워졌다. 그렇게 친구로 인연을 이어 오다가 연애를 시작, 부부가 되기에 이르렀다는 김남열 부장과 최승훈 씨. 그런데 결혼 후에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이 있었으니, 두 사람이 같은 반이었던 적이 있다는 것이다.

“같은 반이었는데 몰랐어요. 그런데 결혼 후 시댁에서 졸업앨범을 보다 보니, 1학년 때 함께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최승훈 씨의 말에 김남열 부장도 “기억에 없는 걸 보니 별로 친하지는 않았나 봐요”라며 농담으로 당시를 회상한다.

기억에서는 사라져버렸지만 가장 순수한 시절을 함께했기 때문일까. 부부는 서로에게 가장 든든하고 편안한 친구이기도 하다. 부부 사이처럼 아이들과도 친밀하고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두 사람. 김남열 부장은 “저희 시대 아버지들은 대개 무뎠고 권위적이셨잖아요. 저는 아이들과 편하게 얘기하고, 소통할 수 있는 아빠가 되고 싶어요”라며 추구하는 아버지상을 얘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마음과는 달리 아이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적어 늘 미안하다는 김남열 부장. 그래서 주말이면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즐거운 추억을 쌓으려 노력하는 그다. 축구와 테니스를 좋아하는 경래와는 함께 운동을 하기도 하고, 인근 공원에서 가족들과 산책을 즐기기도 한다. 엄마 최승훈 씨 역시 “자상한 남편이자 아빠”라며 후한 점수를 주는 것을 망설이지 않는다.

동화의 나라 속으로, 피노키오뮤지엄

식사 후에는 파주출판도시 산책에 나섰다. 때로는 다정하게 손을 잡고, 때로는 앞서서니 뒤서거나 하며 책의 거리를 거닐다가 발 걸음을 멈춘 곳은 ‘피노키오뮤지엄’. 건물 입구의 피노키오 조형물이 눈길을 끄는 이곳은, 이름 그대로 피노키오의 모든 것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다.

박물관으로 들어서자 원작을 재미있게 풀어낸 구연동화 ‘피노키오의 모험’ 공연이 아이들을 피노키오의 세계로 안내한다. 구연동화가 끝난 후 배우가 “여러분의 소원은 뭐예요?”라고 묻자, 자신이 손을 들기는 쑥스러운지 동생 태은이의 팔을 대신 들어 발표권을 얻어내는 경래. 모두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태은이가 수줍게 말한 소원은 “엘사가 되고 싶어요”다. 태은이의 뒤를 이어 나온 “안나가 되고 싶어요”, “또봇이 되고 싶어요”라는 아이들의 소원 릴레이에, 공연장 안에는 한바탕 유쾌한 웃음이 번진다. 박물관 3층에 마련된 전시장에서는 수백여 점의 피노키오 작품이 가족들을 맞이한다. 마리오네트 인형부터 목각인형, 피노키오 초판본, 생활소품 등 세계 각국의 다채로운 피노키오 작품들에 눈을 떼지 못하는 네 사람. 특히 피노키오와 함께 어린 시절을 보낸 엄마 아빠는 그 시절로 돌아간 듯 추억에 젖어들기도 한다.



그런 부모님의 추억을 알 리 없는 경래와 태은이는, 전시 관람 후에 이어진 피노키오 만들기 체험에 마냥 신이 났다. 주어진 목각인형 모형을 각각 해리포터와 오로라공주로 꾸며보기로 한 경래와 태은이. 김남열 부장은 경래의 도우미를, 최승훈 씨는 태은이의 도우미를 자칭해 만들기를 시작한다. 현대 도우미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피노키오 만들기에 열중하는 김남열 부장과 최승훈 씨.

“아무 생각 없이 색칠하다 보니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 같아요” 라는 최승훈 씨의 말에 김남열 부장도 “요즘 성인 사이에 컬러링북이 유행이러는데,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며 맞장구를 친다.

심혈을 기울여 색칠을 완성한 피노키오에 단추와 리본, 망토 등으로 장신구를 더하자 멋진 해리포터 인형과, 예쁜 오로라공주 인형이 탄생한다. 직접 만든 인형이 만족스러운지 연신 들여다보고 사랑을 하는 경래와 태은이. 그런 아이들을 보며, 부부는 오늘의 체험이 언젠가는 아이들이 행복하게 곱씹을 수 있는 추억이 되기를 소망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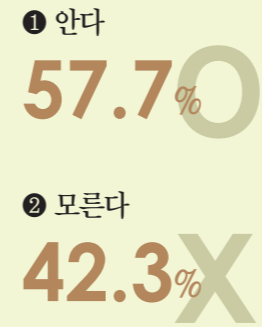
책을 더 읽고 싶다는 경래와 태은이의 말에 박물관을 나서 도서관으로 다시 발걸음을 옮기는 가족들. 한 손에는 피노키오 인형을, 한 손에는 엄마 아빠의 손을 꼭 잡고 걷어가는 가족의 모습이 봄날처럼 화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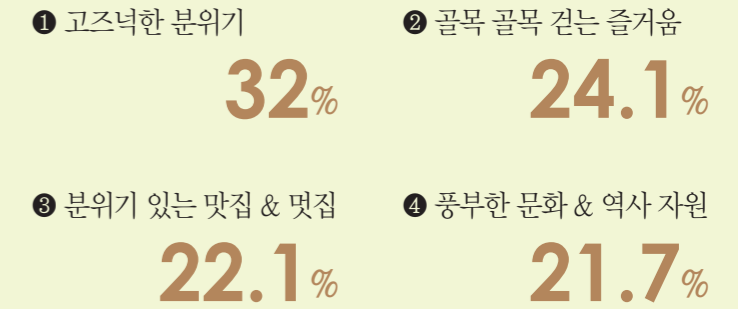
SBI 추천 맛집·멋집 '성북동'편

을지로 본사에서 그리 멀지 않은 성북동. 한양 도성의 북쪽 마을(城北洞)이라 하여 이름 붙여진 '성북동'은 예부터 수많은 문인들이 창작의 고향으로 뿌리를 내렸고, 옛 서울의 풍경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정겨운 동네입니다. 끊어질 듯 이어지는 한양도성, 민족문화의 정수를 보여 주는 간송미술관, 해외 국민들의 단골 방문 장소인 가구박물관, 가슴 아린 사연을 고이 간직한 길상사까지 호젓한 정취를 느낄 수 있죠. 떠나기 좋은 계절, 바람도, 공기도 느리게 흐르는 성북동을 자박자박 거닐며 그 잔잔한 매력에 빠져 봅시다.

성북동을 아시나요?



성북동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성북동에 가면 이곳은 꼭 들러야 한다! SBI인들이 추천해준 맛집과 멋집, 가볼 만한 곳

- 카메라 하나 메고 길상사에 찾아가면 감동입니다!
- 성북동 전통찻집 '수연산방'을 추천합니다. 『황진이』, 『왕자호동』 등을 집필한 이태준 작가의 고택으로 현재는 전통찻집으로 운영 중이며, 도심 속에 옛 가옥의 멋스러움과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추~!!
- 한성대입구역 5번 출구 인근 '성북동 국시집' 추천합니다. 칼국수 치곤 싼 금액은 아니지만 워낙 유명하고 음식값을 하는 것 같아 좋다고 생각합니다. 비 오는 날의 칼국수는 더욱 맛있습니다 ^^

특명! 관계의 정글에서 살아남기

호랑이 부장님, 토끼 같은 막내 사원, 여우 같은 동료까지 많은 사람이 부대끼는 일터는 '관계의 정글'이다. 하지만 잊지 말자. 진정한 정글의 법칙은 약육강식이 아닌, 모두와 원만하게 살아남는 공생이라는 것을!

법칙 하나 시한폭탄 상사의 분노 게이지 낮추기

한 성격하기로 이름난 K부장.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기만 해도 팀원들은 바짝 긴장한다. 이때 사무실의 정적을 깨고 떨어지는 불호령.

“엣그제 얘기했던 사업 관련 보고서는 대체 어떻게 된 거야! 간단한 지시에도 피드백이 이렇게 느려서야 되겠어?”



한 번 시작된 그의 호통은 불쌍한 B과장이 희생양이 되고서야 끝났다. 안달복달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K부장을 내 편으로 만들기, 과연 가능하긴 한 걸까?

지시한 일의 결과를 애타게 기다리고 진행 상황을 늘 궁금해 하는 것은 상사들의 일반적인 심리다. 하지만 부하 직원들을 지나치게 못 미더워하고 울컥울컥 화를 낸다면 그는 남보다 더 목표에 갖들리고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상사의 심리를 역으로 이용하면 신뢰를 얻는 일은 훨씬 쉬워진다. 해결책은 바로 상사가 묻기 전에 상황을 수시로 보고하고 또 더 좋은 방향이 무엇인지 질문하는 것. 만일 성격 급한 상사가 “3일 후까지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면 결과물을 그때 가져가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마감일을 지키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그 중간에 보고서의 초안을 확인 받고 또 상사의 의견을 반영해 수정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중간보고로 일의 진행 상황을 알리고 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구하다 보면 어느새 상사의 재촉과 질문 공세가 서서히 줄어들다. ‘알아서 잘하는 사람’이라고 인정받기만 한다면 호랑이 상사는 가장 든든한 내 편이 되어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법칙 둘 유리멘탈 부하 직원, 은근하게 기 살려주기

팀장의 부름에 잔뜩 긴장한 A사원. 별일도 아니건만 지나치게 주눅 들어있는 모습에 보는 사람까지 답답해진다. 간단한 질문에도 당황하고 어물대서 상사의 화를 돋우기 일쑤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말 좀 똑바로 해!”

결국 한소리를 듣고 자리로 돌아오는 표정을 보니, 마음이 좋지 않아 또 업무에 지장이 있을 게 분명하다. 겁 많은 토끼처럼 상사의 눈치만 살피고 말 한마디에도 이리저리 휘둘리는 부하 직원, 어떻게 대해야 할까?

홈그라운드에서 더 나은 실력을 떨치는 운동선수처럼 직장인 역시 일터에서 마음이 편해야 더 좋은 성과를 낸다.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사무실에서 늘 불안한 것만큼 괴로운 일도 없을 터. 심리적으로 안정되지 않으면 업무에 집중하기 힘들고 능력도 떨어진다.

이처럼 안정적인 환경에서 부하 직원들이 마음 놓고 일하도록 하는 것도 상사의 중요한 역할이다. 특히 남보다 쉽게 주눅 들고 예민한 사람이 있다면 좀 더 친근한 방식으로 대해야 한다. 하지만 “요즘 집에는 별일 없느냐”거나 “주말에는 뭐 할 거냐”는 식으로 사적인 부분에서 접근해 부담을 주는 것은 금물. 그 보다는 업무의 접점에서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효과적이다. 회의할 때 마음에 차지 않더라도 우선 그의 아이디어를 칭찬한 뒤 발전시킬 방향을 알려 준다거나 하는 방식이다.

또 야단칠 일이 있을 때도 여러 사람 앞에서 꾸짖거나 막다른 골목까지 몰아붙이는 등의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이처럼 조금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부하 직원을 대하다 보면, 전에 없던 잠재력을 발휘하는 그를 보며 뿌듯해지는 순간이 찾아올 것이다.



법칙 셋 능글능글 입상 동기, 적당히 거리두기

퇴근이 가까워진 시간. 컴퓨터 화면에 P대리가 보낸 메신저 창이 뜬다. 또 무슨 부탁을 하려고 그러는지 눈치가 뻐하다.

“OO씨. 미안한데 오늘 내가 많이 바빠서 부장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아직 다 못 찾았어. 내일 아침에 바로 보자고 하실 것 같은데... 좀 도와 주면 안 될까?”

바빴다는 그의 말은 핑계다. 수시로 사무실을 들락거리고 다른 팀원들과 긴긴 티타임을 가지더니 결국 업무 과부하. 필요할 때만 친근하게 구는 P대리를 어쩌면 좋을까?

직장 동료는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하는 사람이다. 특히 입사 동기처럼 특별한 유대감을 가진 사이라면 업무 외에 사적인 부분에서도 교감하며 가까이 지내게 마련. 하지만 이런 친근함이 때로는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잦은 부탁으로 상대를 곤란하게 하거나 스스럼없이 다른 사람을 험담해 시끄러운 일을 만든다.

이런 사람에게서는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하다. 불가능한 부탁을 받았다면 깔끔하게 거절하고 여유가 생겼을 때 돕겠다고 하는 편이 좋다. 요청을 거절한다고 해서 그에게 실례를 범하는 것은 아니며, 또 그것이 나만 해결해 줄 수 있는 일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자.

한편 지나치게 허물없이 굴고 말이 많은 사람을 대할 때는 나의 말수를 줄이는 게 낫다. 쓸데없이 수다스러운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개인사, 험담, 잘난 척 등의 주제가 대부분이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남의 말을 잘 들어 주는 사람이 훨씬 전략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직장생활에서 수다쟁이 여우 옆의 우직한 곰이 더 돋보이기 마련이다.



함께하는 SBI

희망

Bravo! My Life [SBI저축은행 광고모델 '배우 오민석']

금융가이드 [두 자녀를 둔 30~40대 부부의 재테크]

Culture Blog [싱그러운 봄기운과 함께 도심 속에서 즐기는 캠핑의 낭만]

고객으로부터 온 편지

행복 릴레이

Break Time

반갑습니다!

SBI저축은행 광고 모델 ‘배우 오민석’

“

수많은 시청자를 웃고 울게 만들었던 작품 뒤에는 언제나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우직한 모습으로 존재감을 드러내는 배우들이 있다. 지난해 말, 직장인 뿐만 아니라 모든 ‘보통 사람’들의 공감을 자아내며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던 tvN 드라마 <미생> 역시 주연배우를 비롯한 출연자의 열연이 빛났던 특별한 드라마다.

시종 차분한 말투와 무심한 눈빛으로 후배에게 무뎠지만, 결과적으로 우물 안 개구리인 장백기(강하늘 役)를 깨우치게 만들었던 속 깊은 사수 ‘강 대리’ 역시 <미생>이 발견한 배우 중 한 명. 겉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눈길 하나 제스처 하나에 파스함이 스며있는 강 대리는 극 중 묵묵한 활약을 펼치며 확실한 눈도장을 찍었다.

어느덧 데뷔 9년차. 드라마 <별순검3>, <나인>, <조선 총잡이> 등 자신의 필모그래피를 차곡차곡 쌓아오던 그가, 최근 <미생>과 <킬미, 힐미>에 연달아 출연하며 이름 석자를 각인시키기까지 단순히 작품을 잘 만났거나, 캐릭터가 좋았기 때문이라고 치부하기에는 그 내공이 너무나 웅골차다. 그간 어떤 역할이 주어지든 착실히 자신만의 캐릭터를 완성해 나갔고, 조금 돌아가더라도 굽히지 않았던 신념이 드디어 빛을 발한 것이니까. “내일 봅시다”라고 드라마 속에서 그가 후배에게 건넸던 그 울림 있는 인사처럼 내일의 오민석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확실한 건, 그의 연기 인생 제2막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사실이다.



지난해 말, tvN 드라마 <미생>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들었다 났다 했습니다. SBI 사람들 사이에서도 오래도록 회자가 되었고요. 2006년 데뷔해 어느덧 데뷔 9년차가 된 오민석 씨 역시 이 드라마를 통해 배우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셨는데요. 자신에게 <미생>은, 그리고 ‘강 대리’는 어떤 의미였나요?

• • 일단 제게 <미생>처럼 큰 관심을 받았던 작품은 처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미생>을 통해 얻은 게 굉장히 많죠. 특히나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좋은 감독님, 작가님, 우리 배우들, 그리고 스태프들이요. 함께 했던 배우들과는 지금까지도 연락하고 만나면서 오래된 친구처럼, 익숙한 동기처럼 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촬영장 가는 순간 순간이 두근거렸고, 제게는 모두 소중한 값진 추억들이었어요. 또, 대학을 다니다가 연기를 시작해서 직장인들의 삶을 잘 몰랐었는데, 이 드라마를 하면서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도 미처 알지 못했던, 제 안의 강 대리 모습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사실 저는 강 대리가 너무 전형적이고 어디에나 있을 법한 인물 같아서 매력적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드라마를 보고서는 아는 지인이 연락을 해 ‘고등학교 때 형을 보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동생에게 드림을 가르쳐준 적이 있었는데 강 대리처럼 좀 간간했었나 봐요. 여하튼 여러모로 제게 의미 깊은 작품이자 캐릭터였죠.

드라마 속에서 강 대리는 누구나 꿈꿀 법한 이상적인 상사였습니다. 만약 지금 배우가 아닌 평범한 회사원이었다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 본 적 있으신가요?

• • 강 대리라는 인물을 설정할 때 저희 형을 모델로 삼았어요. 회사 생활을 하며 따르는 책임감에 ‘흐트러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 회사 생활을 했다면 형이나 강 대리처럼 일을 할 때는 제대로, 확실히 하려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외적인 부분에서는 오히려 김 대리(김대명 役)와 더 닮아있지 않을까 싶어요. 가령, 저도 설명하고 말하는 걸 좋아해서 상사나 후임과도 대화를 많이 나누며 서로 합을 맞춰갔을 것 같거든요.



SBI저축은행 모델로도 활동 중입니다. 오민석 씨가 전하는 신뢰감 높은 이미지 덕분에, 젊은 세대들에게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짙막한 촬영 소감과 함께, 혹시 현장에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었다면 전해 주세요.

• • 촬영할 때 정말 웃겼어요. 콘티부터 웃음이 터지는 장면이 많았거든요. 다소 코믹한 설정이라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막상 웃음이 들어가니 그 상황에 빠져서 재미있게 임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건, 에피소드라기보다는 광고에서 ATM기계 모양의 탈을 쓰고 연기하신 분들이 너무 고생이 많았다는 점이에요. 영상에서 얼굴은 안 보이지만 그 탈의 무게가 20kg에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여자분들이 안에 들어가서 연기하시는 게 마음이 쓰였어요. 무겁고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열심히 해주셨던 게 기억에 남네요. 그밖에 현장에 나온 SBI 직원들이 유쾌한 분위기를 만들어주셔서 저 역시 첫 광고를 즐겁게 찍었습니다.

한편, 최근 종영한 MBC 수목드라마 <킬미, 힐미>에서는 엔터테인먼트 CEO 차기준 역을 맡아, 야망가로서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작품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 • 일단 제가 연기해야 할 인물이 대본 속에서 살아있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도전해보고 싶은 인물인지 자문한 다음, 결정을 내리죠. 악역인가 아닌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캐릭터가 색깔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그렇게 캐릭터를 맡게 되면 사전 조사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 인물과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나 비슷한 환경에 놓여 있는 인물을 만나 저만의 캐릭터를 설정해 나가요. 가령 차기준의 경우, 저희 회사 대표님을 비롯해 엔터계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이쪽 분야가 아니더라도 일에 열정을 갖고 임하는 분들, 그리고 자신의 분야에서 인정받고 있는 분들을 만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들의 특징적인 부분을 캐치하여 캐릭터에 담아내고자 노력했죠.

경영학을 전공하셨네요. 그런데 어떻게 배우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나요?

• • 다른 인터뷰에서 많이 얘기해 조금 민망하기도 한데, 엉뚱하게도 과거에 만났던 여자친구 때문이었어요. 군 상병 시절 여자친구에게 결별 통보를 받았는데, 그 이유가 '연예인이 되겠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내 부반에서 우연히 TV를 보는데, 그 친구가 정말 나오는 거예요. 연기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 저도 뭔지 모를 자극을 받았죠. 연기가 뭐길래 사랑하는 사람을 버릴까 궁금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점차 저도 연기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시작은 충동적이었지만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커지며 점점 연기의 매력에 빠져들게 되었어요.



아무리 연기가 매력 있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치는 순간이나 힘든 시절이 분명 있었을 텐데요. 그것을 견디게 해준 힘은 무엇이었나요?

• • 흔들릴 때마다 주변에서 저를 향해 보내준 신뢰가 다시 마음을 붙잡게 한 원동력이 된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소속사 대표님은 아무도 저를 모를 때 찾아와 "잘 될 것이다"라며 같이 일해 보자고 손 내밀어 주셨거든요. 그러한 믿음과 확신 덕분에, 결코 주변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더 열심히 했어요.

누군가의 무한한 신뢰만큼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은 없죠. 작품 활동을 하지 않을 때, 생활인으로서의 일상은 어떠한가요?

• • 요즘 들어 가장 많이 하는 건 음악 활동이에요. 지인들과 밴드를 결성해 연습하고 있죠. 음악은 연기와 또 다른 매력이 있거든요. 그 외에 운동도 자주 합니다. 여유 시간에는 취미생활을 소소하게 즐기는 편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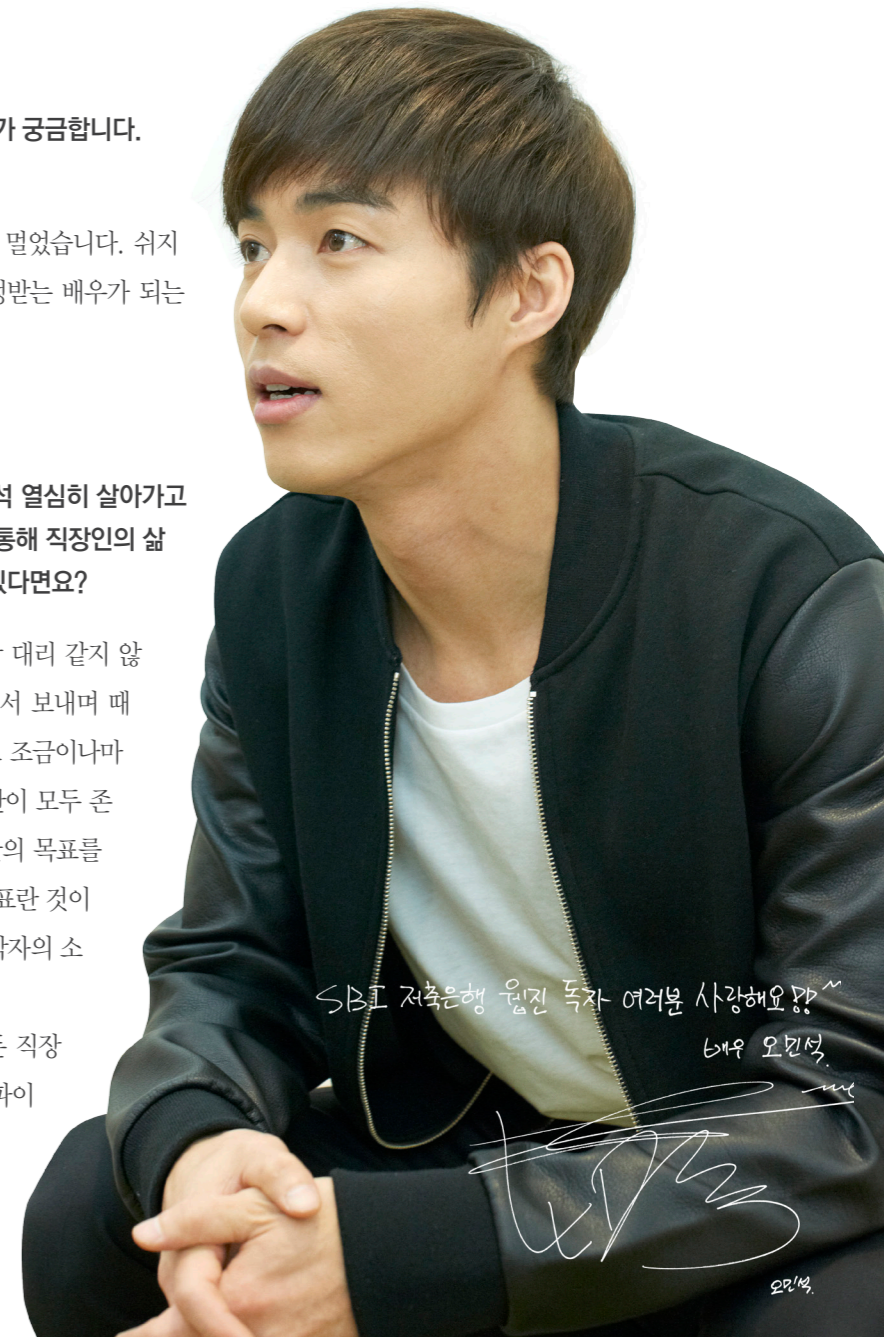
서른 중반을 걸어가고 있는 인간 오민석의 목표가 궁금합니다. 오민석의 '완생'은 무엇입니까.

• • 한 사람으로서, 또 배우로서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려 언젠가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배우가 되는 게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구석구석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잠시나마 <미생>을 통해 직장인의 삶을 경험하면서, 그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 • 현실에서는 모든 상사들이 오 과장이나 강 대리 같지 않은 걸 잘 알고 있어요. 하루의 대부분을 회사에서 보내며 때로는 많은 것을 포기하고 감내해야 한다는 것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있고요. 너무 힘들고, 고생스러운 순간이 모두 존재하겠지만, 그럼에도 그 안에서 명확한 자신만의 목표를 설정하고 하나씩 이뤄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목표란 것이 꼭 거창해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일상에 치여 각자의 소중한 꿈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으면 해요.

SBI저축은행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직장인들! 힘내세요! 완생이 되는 그 날까지 모두 파이팅 하십시오. 아, 그리고 혹시 길을 가다가 저를 보시거든 아는 척도 해주시고요!^^



▷SBI저축은행 워킹 독자 여러분 사랑해요!~
배우 오민석
오민석

두 자녀를 둔 30~40대 부부의 재테크

아이들이 점점 성장하는 동시에 걱정되는 것이 부부의 노후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열심히 돈을 벌고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며 저축을 한다. 하지만 막연히 저축하는 것보다는 내가 벌 수 있는 소득에서 체계적으로 지출계획을 세우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30~40대들이 대체적으로 고민하는 부채상환, 자녀교육 및 결혼자금, 노후자금에 대해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야 미래를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

단기상품을 활용하여 부채를 상환하자

가계부채 1,000조 원 돌파에서 볼 수 있듯이 대다수의 가계에 부채가 존재한다. 미래를 위한 대비도 중요하지만 부채상환이라는 재무목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적금이나 만기예금 및 현금성 자산이 생기는 즉시 부채의 일부를 상환하여 이자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상황에 따라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만큼 이자상환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리하다.

그 다음은 투자를 활용한 부채상환 전략이다. 가계의 부채를 단숨에 상환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대출상환을 할 필요가 있다.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에서 1년 만기 정기적금에 가입해 만기시점에 상환하고, 국내 펀드에 가입해 2~3년 주기로 대출금을 갚아 지속적으로 부채를 줄인다면 이자상환액이 감소하게 된다. 결국 추가적인 저축 여력이 만들어져 안정적인 재정관리가 가능한 것이다.

꼼꼼한 신용관리로 향후 대출계획에 대비하라

인생을 살면서 대출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따라서 향후 대출에 대비해 신용도를 높여서 대출금리를 낮추는 것 또한 주요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평소 세금, 공과금, 신용카드대금, 기존 대출이자를 연체 없이 꾸준히 상환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택 청약, 적립식 펀드, 적금 등도 한 곳의 주거은행으로 몰아서 집중적으로 거래하면 신용도를 높이는 데 유리하다.

개인 신용관리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신의 신용등급 확인뿐만 아니라 신용관리 서비스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해 평소 신용관리에 신경 쓰는 것도 전략이다.

두 자녀의 대학자금과 결혼자금을 동시에 준비하자

두 자녀의 대학자금뿐만 아니라 결혼자금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재무목표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개 남자가 집을 준비하고 여자가 혼수를 장만한다. 신혼부부가 결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조그마한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이 서울의 경우 2억 원 정도이니 일반 사회 초년생이 부모님의 도움 없이 신혼집을 마련하기는 불가능하다. 즉, 장기적금 및 펀드라 할 수 있는 저축성 보험 및 변액유니버설보험에 가입해 자녀의 교육자금 및 결혼자금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 두 상품은 복리효과뿐만 아니라 10년 이상 유지 시에는 비과세까지 가능하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꽤 이점이 있는 상품이다.

또한,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하므로 필요에 따라 중도에 인출해 교육자금 및 결혼자금으로 활용한다면 향후 자녀들에게 들어가는 돈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노후준비 대안으로 적격연금과 비적격연금에 동시에 가입하자

1인당 연 4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해주는 적격연금상품은 근로자든 자영업자든 가입이 가능하다. 월 33만 4,000원의 연금 가입으로 인한 세액공제 환급금액은 51만 2,000원이므로, 세금 혜택과 노후준비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 다만, 신연금저축은 의무적으로 5년 동안 납입 및 만 55세 이후에 최소 15년 이상 연금을 분할수령해야 하고, 연금을 받을 때는 3.3~5.5%(연령별 차등)의 세금도 추정당한다. 만약 중간에 해지하거나 일시불로 연금을 수령한다면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다는 점 또한 명심해야 된다. 만일 세액 공제되는 신연금저축으로만 노후를 준비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된다면 비적격연금을 추가로 가입해 은퇴준비 자금을 좀 더 늘릴 필요가 있다. 비적격연금은 세액 공제를 해주지 않는 대신 연금 수령 시 적격연금과는 반대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 수령하는 연금액은 시중 은행의 단기 금융상품보다 상대적으로 많아 노후를 준비하기에 적합한 금융상품이다.





싱그러운 봄기운과 함께 도심 속에서 즐기는 캠핑의 낭만

쌀쌀한 온도와 세찬 바람으로 잔뜩 움츠러들었던 겨울이 드디어 지나고, 따사로운 햇살과 꽃등을 스치는 풀내음이 향긋한 봄이 찾아왔다. 올해는 봄을 알리는 입춘이 두 번 있는 '쌍춘년'이라 웬지 모르게 봄의 존재가 더욱 크게 다가오는 듯하다. 피부에 와닿는 기운만으로도 기분 좋은 이 봄에 캠핑을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 멀리 나갈 필요 없이 가까운 도심에서 말이다.



쾌적하고 근사한 캠핑 레스토랑 더글램핑

화려하다는 뜻의 영어 'Glamorous'와 'Camping'의 조합어 'Glamping'이란 이름에 걸맞게 고급스러운 실내 인테리어가 눈에 띄는 더글램핑. 이곳 말고도 또 다른 캠핑을 접목한 레스토랑을 함께 운영할 정도로 캠핑을 좋아하는 주인의 애정이 느껴지는 근사하고 안락한 캠핑 콘셉트 레스토랑이다. 이태원의 주택을 개조하여 옥상까지 포함해 총 4층 건물에 꾸며진 여유있는 공간에서 신선한 국내산 육류와 해산물로 구성된 바비큐 세트메뉴와 주류를 즐길 수 있다. 고기는 그릴에 미리 구워져 나와 직접 고생하며 굽지 않고 맛볼 수 있으며 음식은 따뜻한 온도 유지를 위해 온돌 위에 제공된다. 홍합, 가리비, 꽃게 등 각종 해산물로 시원하게 맛을 낸 해산물라면은 바비큐의 느끼함을 해소시켜줘 함께 사랑받는 특선메뉴다. 하절기에는 캠핑 분위기를 보다 물씬 느낄 수 있도록 마당과 옥상 텐트에서 식사를 제공한다고 하니 도심 속 글램핑을 즐기고 싶다면 더글램핑을 찾아보자.

- 추천 메뉴**
- BBQ 세트메뉴 - 38,000원부터(종류별 고기 + 각종 해산물 + 소시지 + 아채)
 - 해산물라면 - 18,800원
 - 주류 - 15,000원부터(베리베리리파 · 코로나리파 등의 글램핑리파, 글램핑업솔루트)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171-23, 24번지 TEL.02-792-3189
평일 16:00~02:00, 토요일 12:00~02:00, 일요일 12:00~24:00 (예약 가능 - 주말은 예약 필수)

캠핑장의 분위기를 극대화한 난장캠프(신사점)

모닥불 근처 자갈밭 위의 텐트 속, 숯불을 이용한 그릴 테이블에서 구워먹는 바비큐 구이는 그야말로 실감 나는 캠핑 분위기를 만끽하게 한다. 매장 곳곳에는 주인이 실제 사용했던 캠핑용품들이 장식되어 있어 분위기를 더욱 살린다. 이곳 역시 캠핑을 좋아하는 주인이 도심 속에서도 캠핑을 즐길 수 있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작하게 되었는데, 매장의 차별화를 위해 난장캠프만의 그릴 테이블과 의자 등의 인테리어 소품을 직접 개발하여 특허출원까지 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의 맛일 터. 폭죽에 사용되는 철대를 이용한 꼬치구이 메뉴와 입맛을 자극하는 다채로운 식자 및 신선한 생과일주를 만들어 제공한다. 초벌구이한 고기는 테이블에서 빠른 시간에 간편하게 구워 먹을 수 있다. 난장캠프는 여러 지점으로 운영되는데, 이곳 신사점의 마스코트라 할 수 있는 애완견 '링고'가 입구에서 손님 맞이한다. 링고를 보러 가게를 찾는 손님이 있을 정도로 인기가 있다고, 난장캠프가 선사하는 아늑한 실내 캠핑에서 봄나들이 기분을 내보자.



- 추천 메뉴**
- 난장세트 - 49,900원부터(종류별 고기 + 소시지 + 탕)
 - 고기, 각종 요리 단품메뉴 - 12,000원부터
 - 별미메뉴 - 4,000원부터(추억의 도시락, 라면 외)
 - 생과일주 - 13,000원부터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9-26 TEL.02-3443-6466
16:00~02:00 (예약 가능 - 주말은 예약 필수)



따끈한 차와 함께 직접 제작한 캠핑용품도 즐길 수 있는 썸딩아웃

캠핑의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곳은 비단 식당뿐이 아니다. '우리만의 놀이'를 주제로 하는 썸과 소통의 공간, 썸딩아웃은 옷, 액세서리, 가구 등 직접 제작한 아웃도어 제품과 전문 브랜드 제품을 온라인 쇼핑몰과 오프라인 카페 겸 스토어에서 판매하고 있다. 썸딩아웃 매장과 홈페이지에서 주인의 '캠핑 사랑'을 여실히 느낄 수 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커피와 차 메뉴가 전부 핸드메이드로 제공되는데, 커피머신을 들이지 않는 이유는 실제 캠핑장에서 핸드드립 커피를 마시는 상황과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언젠가 직접 나설지 모르는 캠핑에 대해 알아두고 싶다면 썸딩아웃에서 따뜻한 차와 함께 캠핑문화를 체험해보자. 매장 휴무일은 주인이 캠핑을 떠나는 둘째, 넷째 주말이라고 하니 방문 시 참고해야겠다.



- 메뉴**
- 핸드드립 커피 - 3,800원부터
 - 과일에이드 - 5,000원
 - 과일 및 허브티 - 3,800원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255-12 가야빌딩 1층
TEL. 070-4121-2013
11:00~23:00 (매월 둘째 · 넷째주 일요일 휴무)

고객으로부터 온 편지

항상 고객 입장에서, 고객 감동을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SBI저축은행.
그 마음을 전달받은 고객분들로부터 칭찬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언제나 환한 미소로 다가가는 우리 직원들에게 어떤 고마운 마음을 전하셨을까요?
힘이 되는 메시지를 공개합니다.

“목동지점 송은지 사원을 칭찬합니다”

To. 목동지점 송은지 사원

SBI저축은행이 높은 금리를 제공한다는 것을 인터넷으로 알게 되어 오늘 방문하였습니다. 일단 주차를 편히 할 수 있어 마음에 들었고요,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청원경찰의 친절한 인사가 좋았습니다. 직장 때문에 마음이 급했는데, 대기하고 있던 저에게 청원경찰이 다가와 서류 작성을 도와주어 빨리 끝낼 수 있었어요. 이후 송은지 사원이 통장 개설을 도와주었고, 일반 은행과 조금 다른 부분들(예를 들면 인터넷 카페나 명함 등)을 연신 웃으며 친절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제 개인사정으로 개설이 지연되었으나, 최대한 저를 배려해 주는 모습이 고마웠습니다. 제 1금융권도 이용하고 있지만, SBI저축은행은 금리도 좋은 데다가 친절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자주 이용하게 될 것 같아요.

From. 2월 9일 김병곤 고객님

“SBI저축은행의 권혁준님을 칭찬합니다”

To. 여신영업3부 권혁준 대리

안녕하세요. 얼마 전 분당선에서 휴대전화를 주워 제게 연락 주신 것, 기억하세요? 그때 성함을 묻지 못해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무작정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작은 정성이지만, 일하시는 도중 잠시의 휴식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고,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From. 1월 27일 김미라 고객님

“이수지점 박성준님을 칭찬합니다”

To. 이수지점 박성준 주임

인터넷뱅킹 문제로 어제, 오늘 지점을 2번이나 방문하고 고객센터 통화를 수차례 했습니다. 결국 오늘도 해결하지 못하고, 지쳐서 집으로 돌아오면서 은행거래는 못하겠다고 낙담하던 중이었어요. 그때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처리할 방법이 없다며 죄송하다고 저를 집으로 돌려보냈던 그 남직원분이었습니다. 해결방법을 하나 생각해 봤으니, 안 될 수도 있지만 시도해 보라고 하더라군요. 제가 간 이후에 계속 알아보고 계셨나 봐요. 인터넷뱅킹이 되든 안 되든, 그 전화에 무한 감동을 받았답니다. 이후 집에 도착해 시도해 보니 결과는 성공! 그 직원분의 책임감 덕분에 그 건은 잘 처리했다고, 이 자리를 빌어 칭찬해 주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From. 2월 6일 이선순 고객님

“콜센터 상담사 이고은님을, 감사합니다”

To. 고객감동센터 이고은 상담사

오늘 적금에 가입해 금리문의를 위해 콜센터로 전화했습니다. 상담사 이고은님께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앞으로 SBI와 거래하는 것이 더욱 편하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혹 은행과 관련하여 어려운 것들을 여쭙어 보면 불친절하신 분들도 많은데 사소한 것 하나하나 섬세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했습니다.

From. 2월 10일 이선민 고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강하세요!



삼성동 SBI타워에서 을지로 센터원으로 이전해오기 전, 15여 년 동안 우리들의 식사를 챙겨주신 원방분식! 많은 SBI인들에게 편안하고 정성스런 소울푸드를 선사해 주신 ‘원방분식’ 어머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김뷰, 비냉, 왕돈가스, 원방찌게
감수!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복름 사원 (일산지점)

짧은 기간 중에 이용 횟수는 적었지만,
순수 정성껏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번창하시고 건강, 행복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동록 부장 (준법감시부)

라면 주문 하나에도 정겹게 반겨
주는 푸관라와 회사의 고락을 함께
해주셨던 마음에 감사드리고,
늘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김문석 상무이사 (임원)

혼자서 그 많은 손님들의 다양한
주문을 원방(원방)에 처리하시던
놀라운 신분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김낙법 차장 (정보시스템실)

이모님 건강하시구요~
푸름 지향 원방에서
삼시세끼 먹던 날이
그렵니다. ^^
김도연 사원 (인천지점)

늘 따뜻하고 훈훈한 원방의 마음,
가슴속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건강
하시고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
방한성 전문역 (심사부)

내 젊음과 같은 원방 ^^
사업 번창하시고 늘 그 자리에 있어
SBI 고장이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윤주인 차장 (인천지점)

항상 반겨주시던 사장님과 사모님
모습이 눈에 선하네요~ 앞으로도 계속
사업 번창하시고 건강하세요 ^^
한재현 지점장 (강남지점)

사장님의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 너무
잘 먹었습니다. 사업 번창하세요...
이훈용 차장 (IB2부)

원방분식 사장님과 사모님을
 처음 알게 되었던 게 멍고제 같은데,
어떤 10년이 훌쩍 넘었네..
꼭 찾아 뵈겠습니다.
안호중 부장 (인사·총무부)

원방찌게와 볶음밥을 맛을 수가
없네요.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길 기원합니다.
남윤우 과장 (감사실)

김밥, 김뷰도 최고입니다.
항상 맛있는 음식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이종영 대리 (재경부)

이모님, 찹다구리 요청에 바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맛있음
^^ 추천!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김경민 사원 (총무부)

그동안 어머니같이 따뜻하게
잘 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김남열 부장 (CSS부)

SBI 가족들 가득 차있던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잊지 못할 겁니다.
사장님 늘 건강하시고, 내내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박중규 차장 (홍보부)

가끔 때를 놓친 듯은 점심에 들어서
먹던 김치볶음밥을 맛을 수가
없습니다. 건강하세요...
채정우 지점장 (잠실지점)

야근을 하는 날이면 당연히
원방분식을 찾았던 거 같네요
^^ 김치볶음밥이랑 치즈라면은
정말 최고인 거 같아요!
아름도 항상 건강하시고
번창하세요 ^^
김덕선 과장 (심사부)

늘 맛있는 음식, 환한 미소로
고픈 배와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원방분식! 정말 감사합니다 ^^
심혜주 사원
(심사부)

같이 센터원 가시는 거
아닌가요??
임진규 전무이사 (임원)

고마운 당신에게 마음을 전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고된 직장생활을 견딜 수 있게 하는 힘은 그리 대단한 것에서부터 오지 않습니다. 바로 희로애락을 함께하는 동료 들을 향한 작은 도움의 손길과 그것에 대한 감사로 긍정적인 에너지가 전파되는 것이죠. 2015년, SBI저축은행 <희망>에서는 매호 SBI 가족 간 감사의 마음을 담은 메시지와 함께 선물을 전하는 '행복 릴레이'를 시작합니다. 그림 해피 바이러스를 전하는 첫 주자들 함께 만나 볼까요.

From
리테일영업2부 백용재 주임

To
정보시스템실 박주형 대리



“SOS를 외치면 손살같이 등장해 문제를 해결해주는 당신은 슈퍼맨!”

SBI저축은행의 신용대출 '바빌론' 고객을 위한 전산 시스템 담당자 박주형 대리님께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대출 업무의 경우 자금이 필요한데 전산적 장애로 인해 접수가 불가능할 경우가 이따금씩 발생하답니다. 그럼 고객도 저도 매우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 “아~ 박주형 대리님, 도와주세요!!”라고 다급히 외치며 #74077 내선 번호를 누르면, 손살같이 등장해 세부적인 오류까지 즉각 해결해 주시곤 하죠. 박 대리님 덕분에 고객님의 원활하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고객은 왕!'이라는 신념 하에 고객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불편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긴급상황이 발생할 때면 어김 없이 저의 슈퍼맨 박 대리님께 의지할 테니 계속 도와주실 거죠!!** '바빌론'이 SBI저축은행의 메인 상품, SBI를 대표하는 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보자고요! 언제나 수고해주시는 대리님에 대한 제 고마움을 전부 표현할 수 없지만,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필요한 생활용품 장만에 보태시라고 백화점 상품권을 드려요. 기쁘게 받아주세요.

From
채권관리1부 이승현 주임

To
채권관리1부 나대환 사원



“선배가 필요로 하는 것을 척척 알아 맞추며 맹활약하는 든든한 서포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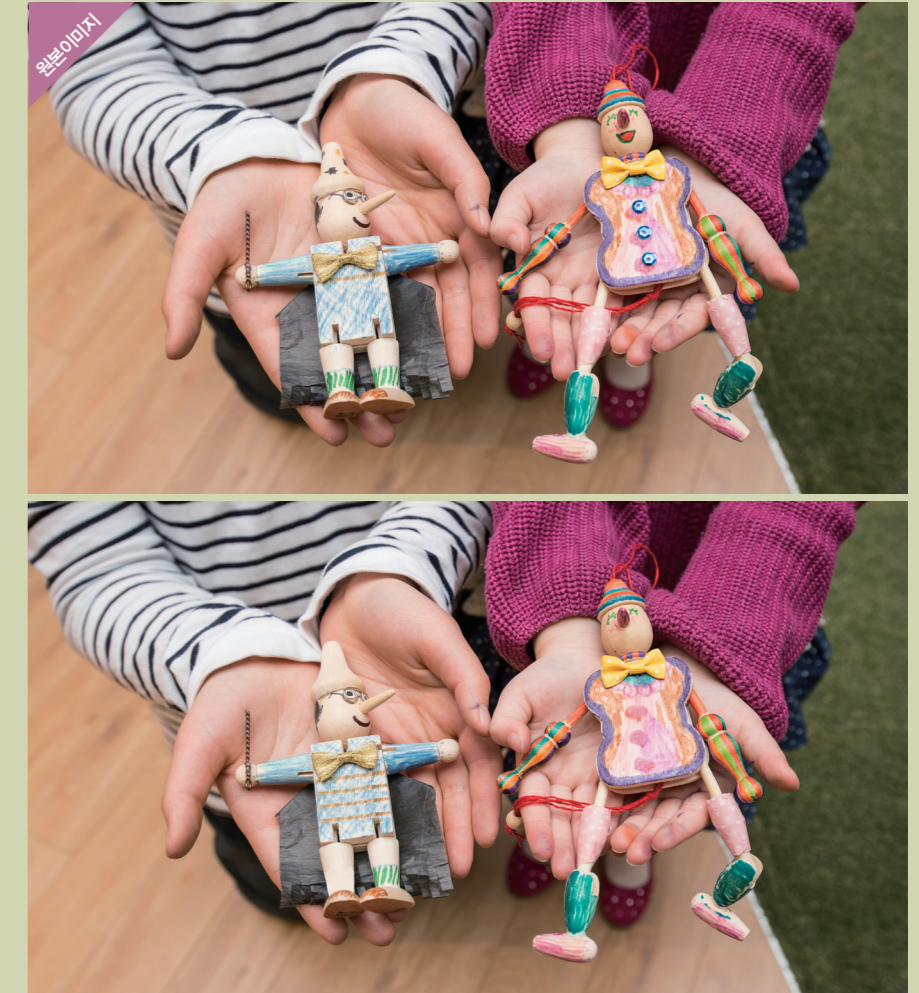
하나의 조직에서 훌륭한 자질을 갖춘 리더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성실한 면모로 선배들을 잘 따르며 도와주는 후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한 점에서 나대환 사원은 정말 칭찬받아 마땅한 후배입니다. 선배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부지런히 살피고, 센스 만점의 기지를 발휘할 때면, '아, 우리 팀 막내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뽑았구나!'라며 감탄하게 된답니다. 대환 씨가 아니었다면 얼마 전 수상한 우수사원 표창도 받지 못했을 거예요. 대환 씨가 열심히 도와준 덕분에요. 언제나 뒤에서 묵묵히 자기 일 열심히 하며 선배들을 든든히 지원하는 우리 팀의 천하무적 막내! 저 뿐만 아니라 팀원 모두에게 사랑받는 아무진 나대환 사원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백화점상품권을 선물합니다. “대환 씨, 평소 선배들 도와줘서 고마워. 상품권 유용하게 사용하고, 지금까지 아주 잘해왔으니, 앞으로도 그 초심 쪽~ 이어가며 좋은 귀감이 되는 훌륭한 선배로 성장하길 응원할게!”

Quiz

쉬어가는 퀴즈!

다른 그림 찾기

두 장의 그림을 비교하여 서로 다른 5곳을 찾아주세요!



나른한 봄날,
재미있는 퀴즈를 풀며
잠시 쉬어가는 건 어떨까요?

홍보부 김원준 사원에게
(karlos7979@sbisb.co.kr)
정답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BLANK QUIZ

각 문장의 빈칸을 채워 단어를 완성해주세요!

지난 호 정답

가로

- 1. 통합선포식
- 2. 심폐소생술
- 3. 플라워센터피스

세로

- 1. 통관
- 4. 선배
- 5. 센터원

- 1. 업계 선두주자로서 그 ()화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hint p.8]
- 2. 자신의 역량을 강()하기 위해 멘토·멘티로 푹푹 뭉쳤는데요. [hint p.20]
- 3.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오늘()기억을 떠올리며 극복하겠다는 6명의 스파이더맨. [hint p.36]
- 4. 기억에서는 사라져버렸지만 가장 순수한 ()질을 함께했기 때문일까. [hint p.40]
- 5. 여하튼 어려모로 제게 의미 깊은 ()품이자 캐릭터였죠. [hint p.49]

저축하자

순간이 쌓이면 시간이 되고
시간이 쌓이면 하루가 됩니다
그리고 하루가 차곡차곡 쌓이면
인생이 만들어집니다

살아간다는 건
저축한다는 것
꿈 용기 희망 행복

대한민국이
아름다운 것들을 저축해
나갈 수 있도록

SBI저축은행이
저축하자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